

당정, 年 3% 수익 '뉴딜펀드' 추진 4

김준 사장, 신입사원들에 '행복 메시지' 10

코스피(31일 전주 대비) ▲ 2249.37 (+48.18P)
코스닥 ▲ 815.30 (+32.08P)
환율(달러당 원화) ▼ 1191.30 (-13.8원)
금리(국고채 3년물) ▼ 0.796% (-0.016%p)

<4400가구>

전세 2억 오르고 대단지엔 매물 없어 '시장 마비'

'임대차법' 첫 주말...시장은 '매물잠김'에 전세가격 천정부지
은마 등 강남 일부단지 매물 실종
집주인-세입자 분쟁 등 부작용도

전·월세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하루이틀 새 전세 보증금은 2억~3억 원 훌쩍 뛰었고, 그나마도 전셋집을 찾지 못한 임차인들은 발을 동동거리고 있다. 집주인들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관련기사 2·3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전격 시행된 후 첫 주말, 강남 일부 단지는 매물이 아예 자취를 감추며 시장이 마비됐다. 강남 대표 학군지인 데다 전세 보증금도 상대적으로 저렴해 전세수요가 많은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현재 4424가구 중 전세 매물은 '0' 건이다. 최근 2~3달간 은마아파트의 평균 전세 거래 건수는 40건 정도였다.

인근 H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은 많지만 매물이 없어 중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임대차3법 시행 초기여서 집주인들도 몸을 사리면서 문의만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단지의 경우 임대차3법뿐 아니라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분양권을 받기 위해서는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는 6·17 대책까지 겹치면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하고 있다.

강남 신축 아파트 단지도 상황은 비슷하다. 강동구 고덕동 J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고덕그라시움 등 신축 단지에서도 매물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들 단지의 경우 임대차3법 도입 전부터 전세가격은 오르고 매물도 구하기 어려워 전세가격이 한두 달 사이에 2억 원이 뛰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안전장치지만 세입자도 마냥 안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세 계약 연장으로 매물잠김이 극심해져 가격이 치솟고 있는 데다 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 증액을 동의해주지 않는 등의 '꼼수'를 고민하는 집주인도 나오고 있어서다.

마포구 공덕동 M공인 측은 "이 일대에선 출퇴근이 편한 역세권 단지를 고집하는 세입자가 많은데 집주인들이 실거주하려는 경우가 많아져 분쟁이 발생하거나 매물잠김 현상이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경우 오히려 전월세 가격만 더 치솟아올며 겨자먹기로 계약을 하든지, 직장에서 더 먼 곳으로 밀려나가는지 둘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민간임대의 재고량 축소가 우려돼 공공임대 공급 확대와 바우처 같은 임대주택 보조책 등이 병행돼야 한다"며 "제도 균형을 위해 세입자 퇴거 및 재계약 거부 사유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선영 기자 moon@
김동호 기자 sorahosi@



집중호우에 수문 연 팔당댐

서울 전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는 등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린 2일 경기 하남시 한강 상류 팔당댐에서 물이 방류되고 있다. 기상청은 제4호 태풍 '하구핏'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면서 4일까지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해외IB "3분기 韓경제 1.3%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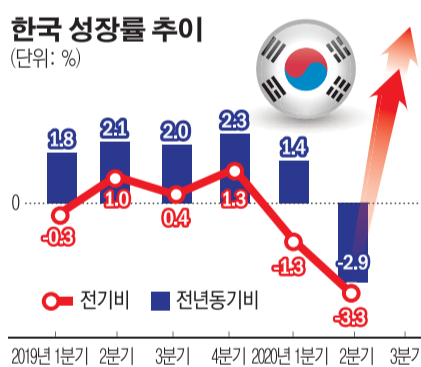
정부 "V자" 전문가 "나йки형"... 성장곡선 놓고 온도차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2분기 -3.3%라는 최악의 성적표에서 벗어나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V자' 반등까지 기대하는 모습이지만 전문가들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진정된다는 전제하에 '나йки형'으로 서서히 회복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

▶관련기사 4면

2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14개 해외 경제연구기관·투자은행(IB)은 한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전기 대비)을 평균 1.3%로 전망했다. 올해 성장률은 코로나19 영향으로 1분기 -1.3%에서 2분기 -3.3%로 최악의 성적표를 기록했다. 3분기부터는 일단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다. 해외 IB들은 한국 경제가 3분기 1.3% 성장한 데 이어 4분기에는 1.4%로 성장률을 더 끌어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3분기부터 중국과 같은 V



자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1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9.8%를 기록한 이후 2분기에 11.5%로 급반등했다. 코로나19 여파가 1분기에 집중돼 2분기에 경제가 급반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1분기 말과 2분기에 코로나 피해가 집중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3분기에 역시 급반등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6월 산업활동동향

에서 생산과 소비, 투자 등 모든 경기 지표가 개선되면서 정부의 논리에 힘을 실었다. 7월 수출도 428억30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0% 줄어드는 데 그쳤다. 작년 동기 대비 수출 감소율이 한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4개월 만이다.

그러나 1% 중반 성장률로는 V자 반등이라고 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V자 반등보다는 나йки형으로 서서히 회복되는 모습이 유력하다. 여기에 상반기 코로나19 특수를 맞았던 반도체가 하반기에는 재고 증가와 본격적 가격 하락으로 성장세가 한풀 꺾이며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우리 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하반기 경기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을 경우 국내 경제는 V자 반등보다는 장기간 느린 회복의 경로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세종=곽도흔 기자 soqood@

표 논리에 39% 면세자 놔둔 채 '유리지갑' 직장인만 터는 정부

스페셜 리포트

수년째 세원 오히려 줄어지고
기존 납세자의 세율만 높아져

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올해에도 되풀이되고 있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3.0%포인트), 종합부동산세 인상(0.4~2.8%포인트) 등 이른바 '부자증세' 때문만은 아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세원은 넓게, 세율은 낮게'라는 조세정책의 원칙이 또다시 깨져서다. 세금을 내는 사람만 더 내야 하는 상황이다. 그나마 과세형평 차원에서 추진됐던 금융투자소득세 신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기본공제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관련기사 5면

2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세법 개정안 중 7·30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인 '부동산 3법(중부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나머지 개정안은 2021년 예산안의 부수법안으로 묶여 예산안과 함께 심의·의결된다.

부동산 3법을 비롯한 올해 세법 개정안의 특징은 부자증세다. 이는 가장 손쉬운 방식의 세법 개정이다. 먼저 조세 저항이 상대적으로 작다. 지난해 기준으로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대상은 1만6000명, 주택분 중부세 납부자는 51만1000명에 불과하다. 또 세율이 명확하다. 원천징수 대상인 근로소득세는 세율이 오른다고 신고가 누락될 우려가 없다.

추세적 잠재성장률 하락과 저출산·고령화로 앞으로 재정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원은 오히려 줄어지고 기존 납세자의 세율만 오르는 상황이다. 이는 글로벌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복지국가의 대표모델인 스웨덴도 올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57%에서 52%로 인하했다. 전반적으로 세원을 넓히면서 세율을 낮추는 기본에 충실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명확한 원칙 없이 좁은 세원에 징벌적 과세만 강화하고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엔 달랐지만, 통상 선거에서 적은 표차로 당락이 갈라다 보니 정치적으로 다수인 서민층을 상대로 세금을 걷겠다고 못 한다"며 "정치적으로 유불리를 따지기보다 욕먹을 것 각오하고 세제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상장사 5곳 중 3곳 '코로나 직격탄'

2분기 실적발표 102곳 중 60곳 매출 감소... 호텔신라 61% 급감

코로나19 여파로 올 2분기 기업 실적의 대규모 악화가 현실화했다. 최근까지 발표된 2분기 실적을 집계한 결과 기업 5곳 가운데 3곳이 지난해보다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례없는 업황 부진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양상이 장기화할 경우 업종별 양극화 현상도 우려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실적 컨센서스(증권사 3곳 이상 추정

치 평균)가 있는 상장사 220곳 중 지난달 31일까지 2분기 실적을 발표한 곳은 102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감소한 곳은 60곳(58.8%)에 달했다.

호텔신라는 매출액이 5230억 원으로 전년 동기(1조3548억 원) 대비 61.4% 줄면서 가장 크게 감소했다. 면세점 부진에 투숙객 감소까지 더해지면서 2분기 연속 적자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 밖에도 효성

첨단소재(-52.4%), SK이노베이션(-44.7%), 현대중공업주(-41.3%), OCI(-38.6%), 현대제철(-26.2%) 등 산업 전반에 역성장세가 이어졌다.

코로나19 사태에 매출액반만 아니라 영업 실적 악화도 뚜렷했다. 실적 발표 상장사 중 65곳(63.7%)에서 작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9곳(8.8%)은 적자 전환하기도 했다.

반면 코로나19에도 영업이익이 개선된 곳은 총 35곳(34.3%)으로 집계됐다. 이 중 5곳은 흑자전환에도 성공하는 저력을 보여줬다. 사업 재편 등 고정부 절감을 통해 실적 방어에 나선 것이 주효했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반도체·하드웨어 '웃고' ... 자동차·중화학 '울고' 희비 갈린 '코로나 성적표'

2분기 업종별 실적 분석

2분기 실적 발표가 반환점을 돌면서 업종별로 희비가 갈린다. 비대면 열풍으로 반도체 관련 업종은 강세를 보였지만 중화학 및 제조업은 고전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코로나19 장기화가 예상되면서 이로 인한 산업별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실적 컨센서스(증권사 3곳 이상 추정치 평균)가 있는 상장사 가운데 2분기 실적을 발표한 곳은 102곳으로, 업종만 20개(FICS분류체계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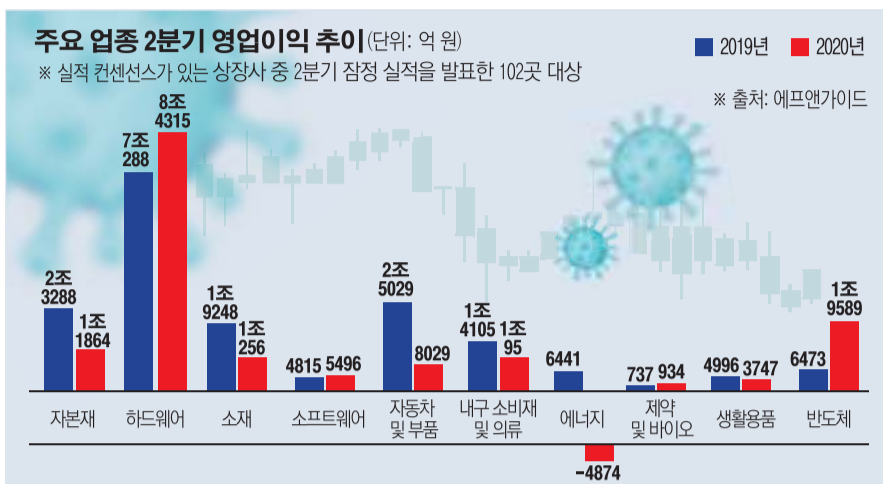
20개 업종 중 14개가 전년 대비 영업실적이 악화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석유화학으로 구성된 에너지 산업(5곳)의 악화세가 뚜렷했다. 해당 산업 내 총 영업이익은 지난해 2분기 6441억 원에서 올 2분기 -4874억 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바닥을 기는 정제마진에 정유업체는 진땀을 흘렸다. 항공유와 휘발유 등 운송용 제품을 중심으로 글로벌 정유 제품 수요가 급감한 영향이 컸다. 이에 유가 하락 관련 재고 손실도 반영하면서 실적 악화 속도는 빨라졌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이 적자 전환하면서 약세를 견인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2분기 4937억 원에서 올 2분기 -4397억 원을 기록했다. 전 분기 1조 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낸 S-oil은 올해 2분기 역시 적자를 냈지만, 전 분기보다 손실 폭을 줄이는 데는 성공했다.

자동차 및 부품 산업 역시 올해 최악의 업황을 겪고 있다. 현대차 및 기아차 등 6곳 모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해당 산업의 총 영업이익은 지난해 2분기 2조5029억 원에서 올 2분기 8029억 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현대차 역시 영업이익이 반토막 났다.



항공유 등 글로벌 정유 수요 급감 에너지 산업 -4874억 적자 전환

현대차 영업이익 5903억 '반토막' 완성차 부진에 부품사로 '불똥'

SK하이닉스 205%↑ '깜짝 실적' 언택트 확산에 반도체 실적 선방

작년 2분기 1조2377억 원에서 올 2분기 5903억 원으로 급감했다. 회사 측은 "코로나19의 본격 확산에 따른 주요 시장에서의 이동 제한 조치 시행, 공장 가동 중단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자동차 수요가 지난해 2분기보다 크게 줄면서 판매 및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완성차가 실적 부진에 빠지면서 부품사에도 후폭풍이 몰아쳤다. 만도와 현대위아는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다. 만도는 지난해 2분기 518억 원 흑자를 냈지만 올 2분기 -759억 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현대위아도 299억 원에서 -386억 원으로 손실을 냈다. 이 밖에도 소재 산업(금속 및 광물·화학)(-47%), 자본재(건설·기계 등)(-49%), 생활용품(-25%) 등도

동반 내림세를 보였다.

반면 반도체 및 하드웨어 산업은 코로나19에도 선전하는 저력을 보여줬다. 최근 언택트 관련 수요가 급증하면서 관련 장비 및 서버 메모리 등이 실적을 주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도체 강세 속 하드웨어(12곳) 강세가 뚜렷했다. 산업 내 총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0% 오른 8조4315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전년 동기 대비 25% 오른 8조1463억 원을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이끌었다.

삼성전자는 2분기 발표에서 "코로나19로 언택트 바람이 불면서 서버 시장이 활성화되며 반도체 실적이 좋게 나타났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셧다운' 이후 각 나라가 다시 영업을 재개하면서 휴대폰이나 가전 등도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이 나왔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 역시 상승세를 보였다.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05.3% 뛰면서 2조 원에 육박하는 깜짝 실적을 기록했다. 같은 산업 내 테크윙의 영업이익도 26.1%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희림 기자 wiseforest@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비 오는 거리로 몰려나온 성난 민심

"다주택자, 투기꾼·적폐로 몰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서울에서 열렸다.

1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맞은편에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항의하는 '6·17 규제 소급적용 강력반대' 집회가 벌어졌다.

집회 참석자는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 '7·10 취득세 소급적용 피해자 모임' 등 네이비카페를 중심으로 모였다.

6·17 규제 소급적용 반대 집회

"文정부 사유재산 강탈하나..."

입장 변화 없을 땐 계속 집회"

이들은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3개 차로에 걸쳐 100m 구간을 메우며 "사유재산 보장하라", "사유재산 강탈정부 민주 없는 독재정부" 등의 구호를 외쳤다. 주최측은 이날 집회에 2000명이 참가했다고 추산했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의 대표인 강모 씨는 "피담 흘려가며 돈 모아서 집을 사 월

세를 받으려는 것이 어떻게 투기꾼이 될 수 있냐"라면서 "사유재산을 강탈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한다"고 주장했다.

강 씨는 "문재인 정부가 180석 독재 여당을 만들기 위해 총선 직전 코로나 19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국민 혈세를 탕진했다"며 "이후 세금을 메꾸려고 다주택자들을 갑자기 투기꾼, 적폐

로 몰아 사유재산을 강탈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최측은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다음

주에도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집회 일자는 8일 오후로 잠정 결정됐다.

주최측 관계자는 "정부 부동산 정책의 잘못된 부분을 알리고자 집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집회가 열릴 때마다 우리의 목소리에 동조하는 인원이 더 늘고 있다"며 "여론을 모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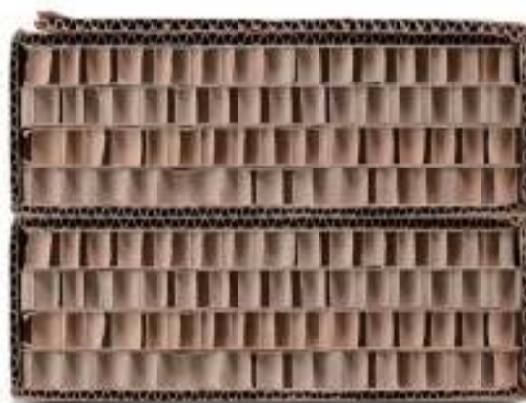


1일 서울 여의도에서 6·17규제소급적용 피해자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등 부동산 관련단체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신발투척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백화점그룹 h point

고객과 함께
생활 속 친환경을 실천합니다

- 현대백화점
- 현대홈쇼핑
- 현대아울렛
- 현대백화점 면세점
- 한섬
- 현대리바트
- 현대HCN
- 현대렌탈케어
- 현대그린푸드
- 현대드림투어
- 현대Hmall
- 더현대닷컴
- 더한섬닷컴
- H패션몰
- 현대어린이책미술관



꼼꼼한 완충재

현대리바트는 100% 재생 종이로 만든
별집 구조의 '허니콤' 완충재를 사용합니다.
연간 스티로폼 23만개의 사용을 줄인 허니콤은
가구와 환경을 꼼꼼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Green Friends

집주인 “재산권 침해” 분통... 세입자 “쫓겨날라” 안절부절

임대차법 시행 첫 주말

“전세 보증금 호가가 한꺼번에 2억 원 가까이 뛰니 전셋집 찾는 수요자들이 지금 마련이 쉽지 않다고 하소연한다. 집주인들은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은데 피해자가 되긴 싫다는 입장이다. 이 일대 전세 거래는 이미 폭 짚졌다.”(경기도 과천 K공인 관계자)

‘속전속결’로 처리된 임대차법에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임대차3법과 관련해 위헌 소송까지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일 강남 한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작년 8월 입주 당시 10억 원 안팎이었던 디에이치 아너힐즈 전용 84㎡의 전세보증금 호가가 현재 16억 원에 달한다.

개포동 G공인 측은 “임대차법 통과로 앞으로 3년은 시세대로 받지 못하고 묶이는 건 재산권 침해라고 분통을 터뜨리는 집주인이 여럿 있다”며 “기존 전세가격과 현 시세 간극이 너무 커 5%를 수용이 어렵다고 묘책을 묻는 집주인들이 많지만 방법이 딱히 없어 이럴 바엔 차라리 실거주하겠다는 집주인도 있다”고 말했다.

송파구 잠실동 역시 관련 문의가 많긴 마찬가지다. P공인 측은 “임대차법 관련 문의는 많은데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이 없어 인터넷을 통해 직접 알아보면서 안내 중”이라며 “너무 갑작스럽게 시행에 들어가 모두가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노원구 중계동의 M공인 측도 “임대차법이 아니었으면 가격을 올릴 생각이 없었던 집주인들마저 4년간 가격이 묶인다는 생각에 고민을 하는 분위기”라며 “임대인, 임차인 할 것 없이 우왕좌왕 불안해하고 있다”고 했다.

세입자라고 해서 마냥 안도할 순 없다.

임대인-임차인 격전장 된 온라인

“직접 들어가 살테니 방 빼라” “실거주 확인한 뒤 나가겠다”

중개사도 내용 몰라 혼란 가중

“실거주하겠다고 했더니 세입자가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다네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온라인 갈등이 노골적으로 커지고 있다. 집주인은 세입자를 나가게 할 방법을, 세입자는 계약을 연장할 방법을 찾아 서로 비난하는 글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달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는 ‘임대차보호법’ 성토장으로 변했다. 임차인(세입자)은 임대인(집주인)에게 전·월세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임대료를 기존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쫓겨나도록 수밖에 없다.

이에 한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실거주를 할 테니 기존 계약 기간 이후에는 나가 달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실거주하시는지 확인하고 움직이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이 게시글에는 세입자를 욕하는 댓글이 주로 달렸다.

현 상황을 비꼬는 게시글도 줄을 이었다. ‘집주인 실거주를 확인하는 흥신소 사업이 뜨겠다’, ‘주변 전세 시세가 10억 원이고, 지금 전세 계약 보증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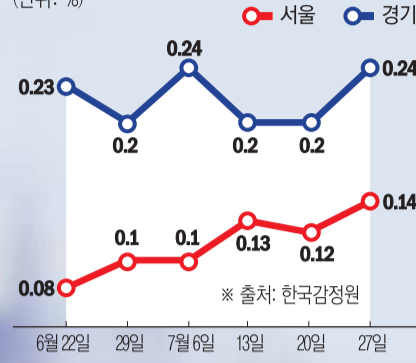
임대차 2법 주요내용

계약갱신청구권
- 세입자의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 연장
- 집주인과 직계존속 및 비속이 주택이 실거주할 경우 계약갱신 청구 거부

전월세상한제

-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 5% 이내 제한
- 지방자치단체가 5% 이내 상한에서 결정

서울·경기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



집주인, 줄이는 실거주 선언

4년간 전셋값 제한적 인상 우려 전세대출 증액 미동의 등 꼼수도

공인중개소들은 이번 법안에 받을 구르는 건 오히려 기존 세입자나 전셋집을 찾는 수요자라고 한목소리로 이야기한다. 전세 계약 연장으로 매물잠금이 극심해져 가격이 치솟고 있는 데다 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 증액을 동의해주지 않는 등의 꼼수를 고민하는 집주인도 있기 때문이다.

잠실 P공인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 증액에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차질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방식을 고민하는 집주인도 있다”며 “이게 이번 대책의 허점”이라고 지적했다.

전세시장 불안은 서울뿐만이 아니다. 전셋값이 폭등세를 보이고 있는 하남을 비롯해 수도권 전 지역이 사정권이다. 3기 신도시 인근 지역의 경우 가격이 속수무책으로 오를 수 있다는 지적이 현지 공인중개소 사이에서 나온다. 임대차법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만 더 가중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세입자 ‘전세 찾아 삼만리’

계약 연장에 극심해진 매물잠김 억대 보증금 인상분 마련 ‘진땀’

임대차법에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이 낮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계동 M공인은 “이 일대는 기존 세입자가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아 전세 물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수익이 줄어들면 집주인들이 집수리 등에 소극적으로 대응

임대주택 질적 악화 우려

전세 수익 줄어드는 집주인들 집수리 등 소극적 대응 불보듯

해 이곳처럼 노후 주택이 많은 지역은 임대시장 자체가 질적으로 저하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세입자들 사이에선 임대차법이 임차인의 안정적 삶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릴 뿐이라는 회의적인 반응까지 나온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의 임대차3법 도입을 두고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기도 한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1일 정부의 임대차3법 중 하나인 ‘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해 임차인과 임대인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이들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으로 부동산 시장에 전세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 전셋집에 사는 임차인이 다른 전셋집으로 이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전세 물량 감소와 전셋값 폭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임대차법의 같은 역효과를 줄이기 위해선 매물잠김 방지책과 임대인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시장의 국지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시행에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서울은 내년 아파트 입주물량이 감소해 임대료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지만, 공급 과잉으로 전셋값이 하락하는 다른 지역에선 임대차법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박종화 기자 pbell@

매일 하는 체지방 관리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골드

현대인의 문제적인 식습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리미엄 녹차 정제



고열량, 고탄수화물, 고당류 식이 섭취로부터 체지방, 콜레스테롤 개선
메타그린 골드의 녹차추출물이 고열량, 고탄수화물 식단이 잦은 한국인의 체지방 관리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을 도와 대사 건강을 케어합니다



현대인의 불규칙한 식생활 습관으로부터 항산화, 뼈 건강 관리
비타민C, 녹차추출물이 함유되어 불규칙한 생활습관으로 생성되는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며, 비타민D가 함유되어 뼈 건강까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메타그린 골드만의 프리미엄 정제 기술 적용
아모레퍼시픽만의 녹차 정제 기술을 높여, 정제를 만들고 코팅하는데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 0가지(아산화티타늄,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를 함유하지 않았으며, 장용성 코팅 기술로 더욱 속 편하고 부드럽게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 국내 농산물 유래 건강기능식품 중 최초로 농림축산식품부 **녹색기술제품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100% 유기농
국산 녹차
오실텍 농장 직접 재배 관리



제품상담
구매문의 | 080-023-5454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구매하세요

바이탈뷰티

정용욱 기자 dragon@

당정, 年 3% 수익 '뉴딜펀드' 추진... 유동성 흡수할까

시중 돈 주식·부동산에 쏠려... 홍남기 "생산적 투자로 이어져야"
기업·금융기관 등과 펀드 물밑 조율... 원금 보장·세제 혜택 검토

당정이 연 3% 안팎의 수익률을 제공하는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를 조성을 추진한다. 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이르면 이달 중 '한국판 뉴딜' 재원 조성국 국민소득 증대를 위한 뉴딜펀드 출시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민주당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 분과위원장인 이광재 의원이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를 제안한 이후 민간기업, 금융기관 등과 뉴딜펀드 출시를 위한 물밑 조율을 하고 있다.

당정이 구상하는 뉴딜펀드는 디지털·그린뉴딜 등 한국판 뉴딜사업의 재원이 될 사업별 펀드를 금융회사를 통해 판매하는 방식이다. 원금 보장형에 수익률은 연 3% 내외를 고려 중이다. 수익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사업 성과에 따라 추가 수익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펀드가 투자할 사업 발굴을 위해선 관계부처가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뉴딜 관련 사업 아이디어를 낸 기

업에 입찰 시 가점을 주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뉴딜펀드는 뉴딜사업 재원을 조성하는 것 외에, 시중에 과하게 풀린 유동성을 흡수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5월 국내 통화량(M2·광의통화)은 3053조9000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세계 경제성장률 둔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준금리 인하, 경기부양 목적의 재정지출 확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하지만 늘어난 유동성은 부동산, 주식 등 위험자산 투자에 쏠리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세다. 2일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가상화폐 시가총액 3위인 리플의 시세는 최근 1주간 47.24% 올랐다. 가상화폐 시장의 기축통화인 비트코인도 20.34% 상승했다. 안전 자산 중에는 금값 오름세가 가파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KRX 금

시장에서 1kg 금 현물의 1g당 가격은 7만 8490원으로, 올 초(1월 2일)보다 40% 가까이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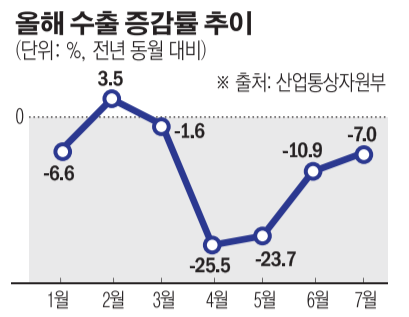
반면, 소비는 마르고 있다. 한국은행의 가계 목적별 최종소비지출(명목)을 보면, 올해 1분기 식품품 및 비주류 음료(식생활), 임대료 및 수도·광열(전·월세·수도·관리비 등), 가계시설 및 운영(가구·가전 등), 의료·보건(병원비 등) 등 4대 필수지출품목의 지출액은 84조8166억 원으로 전체 국내 소비지출(209조1331억 원)의 40.56%를 차지했다. 꼭 필요한 데에만 돈을 쓰고, 사치성 소비와 여가에 지갑을 닫았다는 의미다.

이 같은 상황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을 통해 "3000조 원이 넘는 M2 유동성이 부동산이나 금이 아닌 생산적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뉴딜펀드를 언급하며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벤처 시장으로 유입시키고, 유동자금을 친환경 분야 투자로 연결해 윈-윈(win-win)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부연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7월 수출 한 자릿수 감소 '선방' 하반기 D램값 하락 전망 '긴장'

수출액 428억 달러 7% 줄어
"스마트폰 판매 부진 재고 증가"
반도체 수출 악영향 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에 따라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이상 감소했던 수출이 7월에 겨우 한 자릿수 감소로 선방했다. 하지만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가격이 재고 증가 등으로 하반기 하락할 전망이다 수출에 악재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2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대만의 시장조사업체 디램익스체인지와 트랜드포스는 지난달 말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3분기 모바일 D램 가격이 2분기보다 3~8%가량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타입별 D램 공급량(용량) 비중은 2분기 기준 모바일이 39.6%로 최대 비중을 차지한다.

트렌드포스는 "스마트폰 브랜드들이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위축을 피하기 위해 D램 수요를 유지했으나 상반기 스마트폰 판매가 부진하면서 재고가 증가했다"며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 스마트폰 업체들이 재고 축소에 주력하고 있어 3분기에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버와 PC용 D램 가격은 하반기 들어서 하락 전환했다. 저장 장치인 낸드플래시도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

는 비중은 약 20%에 달해 반도체 수요 감소는 코로나19에서 우리 수출 등 경제의 버팀목이 됐던 반도체가 흔들릴 수 있다.

오피디아에 따르면 글로벌 D램 점유율은 작년 말 기준 삼성전자가 42.7%, SK하이닉스가 28.8%로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낸드플래시는 작년 말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35.9%로 1위, SK하이닉스가 9.9%로 5위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국내 반도체 기업의 하반기 반도체 실적이 상반기에는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7월 수출액은 428억30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7.0%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수출은 2월 3.5% 증가에서 3월 1.6% 감소로 돌아선 뒤 4월 -25.5%, 5월 -23.6%, 6월 10.9%에 이어 7월까지 5개월 연속 감소세다. 다만 4월과 5월 20%대 마이너스에서 6월 10%대 감소로 낙폭을 줄인 뒤 7월 4개월 만에 한 자릿수까지 회복했다. 반도체의 경우 5.6% 증가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qood@



유니클로, 이달 9개 매장 폐점
일본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가 이달 국내 9개 매장을 폐점한다. 유니클로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유통업계의 소비 트렌드 변화를 비롯해 코로나19 확산, 한일 관계 악화 등 여러 영향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2일 유니클로 강남점에 영업 종료 안내문이 걸려 있다.

"빛더미 자원공기업, 해외 자원개발로 부실 털어야"

석유·가스·광물자원공사 등
지난해 부채 55조7000억

"매물 쏟아져... 재투자 적기"
산업부, 혁신 2차 TF 가동

정부가 무리하게 해외 자원개발 투자에 나섰다 부실 등으로 빛더미에 오른 자원공기업의 구조조정에 나선다. 일각에서는 저유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해외 매물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해외 자원개발 투자로 부실을 털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일 각사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3개 자원공기업의 지난해 말 기준 부채는 55조7000억 원에 이른다.

국내 공기업들이 해외 유전이나 가스전을 탐사하고 왔던 사들이던 2008~2012년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

나들었다. 그러나 현재는 40달러 초반에 머물고 있다. 유가가 높았던 때 사들였던 해외 프로젝트는 고스란히 부실로 이어져 공기업들을 빛더미에 올려놨다.

석유공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4조8000억 원이 투입된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전-사회간접자본(SOC) 연계 사업 등 무리하게 벌였던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모두 실패했다. 가스공사도 캐나다 웨스트캣뱅크 가스정 사업, 이라크 아카스 가스전 등의 자원개발 사업 실패 등으로 타격을 입었다.

광물자원공사는 투자비 1조6963억 원이 들어간 멕시코 볼레오 동(銅)광산 사업과 2조1945억 원이 투입된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광산, 8350억 원을 들인 파나마 코브레파나마 동광산 사업 등을 실패했다.

현 정부 들어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자원개발 혁신 1차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구조조정에 나섰다 그간 성과를 내지 못했다. 산업부는 최근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2차 TF를 꾸렸다. 이와 함께 자원공기업 재무 상황과 해외 프로젝트를 재평가하는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토대로 2차 혁신 TF가 구조조정 및 부실처리에 관한 전략, 해외투자에 관한 방향과 원칙을 제시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저유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해외 매물이 쏟아지는 지금이 자원개발 적기라는 주장이 나온다. 자원공기업 부실을 해결하고 이명박 정부 이후 사실상 중단된 해외자원개발 기능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국가 에너지 자원의 94%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며 "자원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안정적인 국가 에너지 공급 및 국가 경제를 뒷받침하는 근간"이라고 말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qood@

멈추지 않는 집단감염... 가을 재유행 우려

홍천 캠퍼스 이어 강남 카페 감염
계절 독감 맞물려 재확산 가능성
의협 호흡기전담클리닉 돌연 불참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계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이 중대 고비에 접어들었다. 강원 홍천군 캠퍼스 사레와 같은 집단감염이 이어지면 가을부터 계절성 독감과 맞물려 재유행으로 번질 우려가 커서다.

더욱이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추진 중인 호흡기전담클리닉은 대한의사협회의 불참으로 벌써부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전날보다 30명 증가한 1만 436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내발생은 8명으로 증가세가 둔화했으나, 언제든 증가세가 다시 확대될 수 있다. 최근 발생한 홍천 캠퍼스 집단감염(7월 24~26일 모임)의 경우 참석자 18명 중 절반인 9명이 감염됐다.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서울 강남구 커피전문점과 사레에선 지표환자 확인(7월 27일) 확인 이후 8명이 추가 확진됐다.

문제는 가을 이후다. 지금까지 소규모 집단감염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계절성 독감까지 돌면 코로나19 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 분류가 어려워져 재유행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계절성 독감은 증상에 차이가 없다"며 "만약 코로나19 환자와 계절성 독감 환자가 구분되지 않은 상태로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유행이 번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호흡기·발열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을 전담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이다. 의료진 선택에 따라 검체를 직접 채취하거나 환자를 선별 진료소로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의사 개인이 참여하는 방식과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하지만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제안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말 느닷없이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의료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운영방안에 비대한 산업 육성이 포함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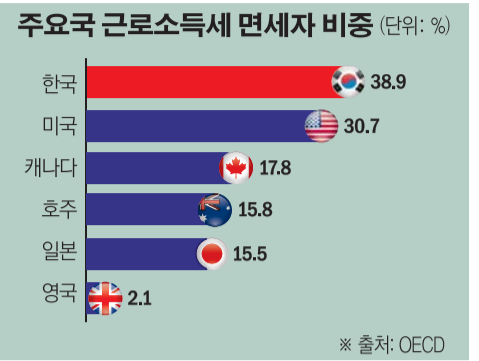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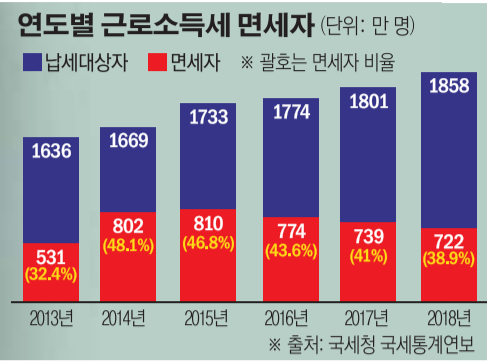
의협은 시·도 의사회에 "정부가 전문가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호흡기전담클리닉 제도와 관련한 원칙 등을 명확히 설명하지도 않는 현 상황에서 공식적인 협조와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며 참여 중단을 요청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근로자 722만명 '세금 0원'... '납세의무' 공정한가요?

조세 형평성 논란

지난해 면세자 비율 40% 육박
美·英·日 등 선진국보다 높아
중산층 감면... 결국 부자증세
전문가들 "조세 저항 눈치보기
선거용 포퓰리즘 정책" 지적



우리나라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적은 액수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헌법으로 못 박은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다르다. 10명 중 4명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면세자를 줄여 보편적 증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지만 '조세저항'이 이를 가로막는다. 정부가 조세 저항이 덜한 고소득층에 대한 부자 증세 카드에 어렵지 않게 꺼내 들고 있지만 중산층 증세는 반발이 심해 손을 대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세금 '0원' = 국세청이 지난해 말 발표한 '2019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8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1858만 명 중 결정세액이 없는 과세미달자는 722만 명에 달했다. 비율로는 38.9%다. 10명 중 4명은 세금이 '0원'이라는 의미다.

2013년 32.4% 수준이던 근로소득세 면

세자 비율은 2014년 48.1%로 급등했다. 2013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이 커지자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세금을 깎아주는 공제에 나섰다. 당시 급한 불은 끄지만 이후 면세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졌다.

면세자 비율은 △2015년 46.8% △2016년 43.6% △2017년 41.0%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미국(30.7%), 캐나다(17.8%), 일본(15.5%), 영국(2.1%) 등 세계 주요국가와 비교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1대 국회 주요 입법·정책 현안' 보고서에서 "높은 면세자 비율은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면세자 축소를 주문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근로소득자의 납부 면세자 비율이 40% 언저리에 있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며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하

게 소득세 부담을 하는 것이 국민개세주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 정부, 조세저항 덜 한 고소득 증세 카드만 = 이 같은 지적에도 보편적 증세 실현은 먼 얘기다. 정부가 면세자 축소에 나서기엔 서민증세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산층에서 세 부담이 늘어날 경우 조세저항이 부담스럽다.

그러나 세 번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역대급 재정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세수 확대가 필수다. 결국 정부가 꺼내든 카드의 조세저항이 덜 한 '부자증세'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발표한 '2020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소득 과세표준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을 현행 42%에서 45%로 3%포인트(P) 상향했다. 종합부동산세율도 최대 2.8% P, 양도소득세율은 1년 미만 보유의 경우 70%까지 인상했다. 정부는 이 같은 '부자증세'를 통해 5년간 10조7115억 원을 더 걷기로 했다.

이와는 반대로 40%에 육박하는 근로소득자 면세 비율을 줄이는 일에는 소극적인 모습이다. '조세저항'이 두렵기 때문이다.

세법개정안이 발표되고 근로소득세 면세율 비율을 줄이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지만 정부는 근로소득을 늘려 자연스럽게 감소하기를 바라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43% 수준까지 올랐다가 최근에는 38~39% 정도로 내려왔다"며 "매년 2~3%씩 낮아지고 있어 조만간 30% 초반으로 저절로 내려갈 것"이라고 답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 전문가는 "근로소득세 면세자 수를 줄여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실현하고 납세자간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며 "조세저항이 크고 상대적으로 유권자 수가 많은 중산층의 세금 감면을 유지하는 것은 포퓰리즘적 조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국민 개세주의' 전문가 제언

"최고세율 높여봤자 증세효과 적어 부가세로 '공평 과세' 연착륙해야"

면세자 月 1만원씩 걷으면 年 1조 '재정절벽 대응' 점진적 개혁 필요

추세적인 잠재성장률 하락,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재정절벽'에 대응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대부분 전문가가 동의한다. 문제는 그 방식이다. 소득세·보유세 과세표준구간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최고세율만 높이면 그 효과는 크지 않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지난해 기준으로 1만6000명에 불과할 정도로 세율이 협소해진다. 반면,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해 세율을 넓히면 세율을 높이지 않아도 세수효과가 크다. 가령 2018년 기준 근로소득세 면세자 722만 명에게 월 1만 원 수준의 소득세만 걷어도 연간 1조 원 가까이 세수가 는다.

단 면세자 축소는 단기적으로 쉽지 않다. 비과세·감면·조세지출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세율 인상보다 조세저항도 강하다. 면세를 '권리'로 받아들던 계층이 그 권리를 빼앗기게 돼서다. 소득세(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등), 법인세,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등 다양한 세목에서 이런 권리계층이 존재한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양도소득세라고 한다면 전체 주택 보유자의 80% 정도 되는 1주택자들에게 그동안 안 물리던 세금을 물리는 것인데, 그 애길 꺼내는 순간 정권을 빼앗길 것"이라며 "분명한 원칙을 세우되, 점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과세하되, 누진성을 높이는 게 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필요한 돈은 늘어나는데 과세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면 그 구멍은 임금근로자 등 기존 납세자가 메울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 가능한 증세는 부가세 인상이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도 한국에 부가세 인상을 권고하고 있다. 한국의 부가세율은 10%로 OECD 회원국 평균(19.2%)의 절반 수준이다. 그런데 전부는 간이과세자와 납부면제 대상에 대폭 확대했다. 사실상 자영업자에 대한 부가세 인한다. 익명을 요청한 조세·재정 전문가는 "일본도 부가세를 인상할 때 정치적으로 부담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추가 세수 전액을 사회복지지출에 쓴다는 조건으로 국민을 설득했다"고 말했다. 결국, 국민을 설득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주체는 정부다.

부가세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란 원칙에 보다 부합한다. 이상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수 부자에 증세해도 세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지만, 소비는 모든 사람이 하기 때문에 세율을 조금만 올려도 그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다만 역진성 측면에선 문제가 존재한다. 월 100만 원을 벌어서 100만 원을 소비한다면 소득액 전부에 세금을 물지만, 월 1000만 원을 벌어서 500만 원을 소비한다면, 소득액의 절반에만 세금을 물게 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소비가 아닌 소득의 관점에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과세대상 소득비율이 높아지는 것이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저소득층에 대한 조세·재정지출 확대 등 다른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부가세는 역진성이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세수를 취약계층에 더 많이 지출하는 방식으로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며 "어떤 국가든 부가세를 인상은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으므로, 단순히 증세 차원보단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KB 금융그룹 | 국민개세주의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국민, 좋아요 ♥
보험, 좋아요 ♥**

**KB 손해보험 | KB 생명보험
LOVE YOURSELF 프로젝트**

바쁜 일상 때문에 정작 자신을 챙기지 못하는 국민 여러분 - KB손해보험과 KB생명보험이 [나를 위한 LOVE YOURSELF 프로젝트]로 빠짐없이 챙겨드릴게요! 꼭 필요한 보장만 모아 빈틈없이 통합관리해주는 보험

보험은 역시 KB입니다

KB 손해보험
아이의 미래, 더 밝아질 수 있도록
KB 자녀보험

KB 손해보험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KB 건강보험

KB 손해보험
소중한 내차, 더 안전할 수 있도록
KB 자동차보험

KB 생명보험
보험금 청구를 쉽고 빠르게
KB 간편청구서비스

KB 생명보험
나와 내 가족, 더 안심할 수 있도록
KB 종신보험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예액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장이 없습니다. *가산 보험료를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가 가산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장과 있는 다음 중 어느 한가의 경우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살을 한 경우 ② 피보험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한 경우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한 경우 *보험계약의 자세한 상품내용과 계약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보험문의 상담전화 1864949(2019.07.08) *주식서비스 강남구 테헤란로 117 KB손해보험 빌딩 www.kbinsure.co.kr *고객콜센터 1544-0114 *생명보험문의 상담전화 1919-02195 (2019-07-09) *주식서비스 명동분구 국제금융로 2길 28 KB 금융타워 www.kbfi.co.kr *고객콜센터 1588-9922

KB 손해보험 | KB 생명보험

“신선·공감”... 통합당 투쟁모델 된 ‘윤희숙 신드롬’

짙은 장외 투쟁 ‘비호감’ 이미지
내일 본회의도 초선 의원들 투입
일부에선 장외 강경 투쟁 주장도



스감염증, 여름 휴가철 같은 당 외부 상황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사실상 짙은 장외 투쟁을 비호감으로 여기는 민심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골수 지지자들 사이에선 강경한 장외투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이 때문에 통합당이 지난주 의원총회나 원내지도부 회의 등에서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윤희숙 통합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 3법 기본이 되는 계약갱신청구권(2+2)과 전월세상한제(계약 갱신 시 5% 이내 인상)가 통과된 후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하는 5분 연설을 했다. 이후 윤 의원의 연설이 온라인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석권하는 등 호평을 받았다. 모처럼 제1야당의 존재감을 부각한 ‘윤희숙 모델’을 통해 장외 투쟁이 아닌 원내 투쟁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이고 있다. 원내지도부는 일단 4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대응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이할 계획이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윤희숙 의원처럼 국민에게 여당의 실정과 일방 독주를 잘 전달할 의원들로 발언자 진용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4일 본회의에 당내 검투사로 불리는 조수진 의원, 이명박(MB) 청와대 대변인 출신 김은혜 의원,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불리는 박수영 등 다른 초선 의원들의 발언 신징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수 집회를 이끄는 주호영 원내대표도 바뀌고 있다는 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정치 문제보다는 경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 논란이나 부동산 집회 등에 반발하는 3040 세대가 전면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처럼 젊은 층에 소구하기 위한 야당의 노선 방식에 대한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내가 민주당 대표 적임자”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들이 2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낙연·김부겸·박주민 후보(기호순). 연합뉴스

여야 합의도 안됐는데... ‘국회 분원’ 추진단 모집 논란

국회사무처 근무 희망자 수요조사
예산·홍보 등 경험 있는 직원 선발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 지적

글을 올려 세종의사당(국회분원) 건립 추진단에 근무할 국회 소속 공무원 모집을 30일 마쳤다.

추진단은 예산편성·집행, 청사 건립, 언론 홍보 등 유관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직원을 중심으로 구성한다고 조사서는 밝혔다. 근무기간은 구성 이후 5개월 이내며 필요시 연장 가능하다고 조사서는 명시했다.

국회 운영위 관계자는 “부동산 여론이 안 좋아져서 국회 세종시 이전 화두를 던지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세종시국회 분원 설치의 행정수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위험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정치권은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수도는 국가권력의 핵심적 사항을 수행하는 국가기관들이

집중 소재하여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실현하고 대외적으로 그 국가를 상징하는 곳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에 국회와 청와대를 수도인 서울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례다.

앞서 민주당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꺼내기 이전 2017년과 2019년 국회사무처를 통해 국회 세종시 이전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이를 두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23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청와대와 국회까지 가는 행정수도 이전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서울에 있는 외국 공관까지 많이 이전해 가야 되는 커다란 문제이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하고, 또 기칠 수 있는 많은 영향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하늬 기자 honey@

시진핑 연내 방한 가시화... 수출 ‘청신호’

한·중 24차 경제공동위 개최



중소기업 입국 원활화와 항공편 확대 등 제도 보안을 위한 중국 측 협조를 당부했다.

중국 측은 한중 간 방역 및 경제협력이 국제 사회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고, 양 측은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및 비대면 산업 등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서 협력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국과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으로 대면 회의를 하고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회의는 연내로 추진 중인 시진핑 <사진>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대비한 것으로 풀이되며 그동안 막혔던 중국 수출길을 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지난 1일 중국 칭다오에서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리청강(李成綱) 중국 상무부 부장조리를 수석대표로 한중 간 포괄적 경제협력 대화체인 제24차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한중 간 기업인 입국을 위한 신속통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평가했고, 한국 측은

시 주석은 현재로서는 연내 방한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애초 양국 정부는 상반기에 시 주석 방한을 성사시킬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상황의 악화로 무산됐다. 이번 회의는 시 주석 방한 전 양국 간 경제 협력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우리 아이들의
마음 속에
하늘색이
사리질지도
오릅니다

초미세먼지 나쁨
1년 70일 이상

아동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문제에 가장 취약

아이들이 파란 하늘 아래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앞장섭니다.
함께 해주세요!

SK하이닉스 첨단동화

토끼와 거북이



만약 이때,
거북이에게 SK하이닉스의
상생 정신*이

없었다면

있었다면

토끼가 깨지 않게
최대한 조용히 지나간다

뒤늦게 깨어나 화가 난
토끼가 앞질러 가버린다

거북이는 패배하고
토끼는 약물에 시달린다

정정당당한 경쟁을 위해
자고 있는 토끼를 깨운다

잠에서 깬 토끼가 깜짝 놀라
달리다 강을 만나 멈춘다

거북이가 토끼를 등에 태우고 강을 건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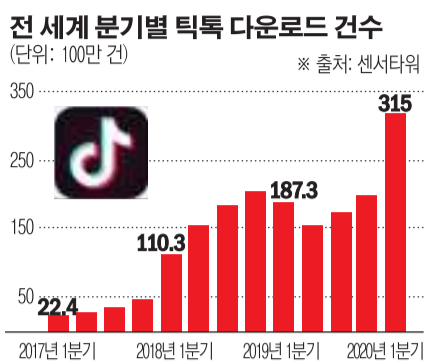
고마운 토끼는
다시 거북이를 업고 달려
함께 우승한다

상생의 기술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듭니다

*SK하이닉스는 1000여 개의 협력사들과 함께 반도체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2의 화웨이’ 되나... ‘틱톡’ 내쫓는 트럼프 속내는

‘안보’ 핑계로 ‘美 퇴출’ 초읽기
 바이트댄스, 틱톡 완전철수 시사
 MS 아닌 외국기업 매각 가능성
 기술굴기 차단 中 옥죄기 포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동영상 앱인 ‘틱톡’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제2의 화웨이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플로리다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틱톡의 미국 내 사용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나에게 그런 권한이 있다”면서 “비상경제관급이나 행정명령을 동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언제 조치가 내려지는지는 몰음에 “곧 이뤄진다”며 “내일(1일) 문건에 서명할 것”이라고 답해 틱톡의 미국 퇴출이 임박했음을 예고했다.

미국 정부는 틱톡이 회원유치 과정에서 확보한 개인정보를 중국 정부에 유출해 국가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며 여러 차례 금지를 경고해 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것은 특정 회사가 아니라 미국의 국가 안보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테크놀로지를 ‘민간기업의 탈을 쓴 중국 정부의 스파이’라고 비난한 것과 오버랩 된다.

미국 상무부는 틱톡을 화웨이처럼 거래 금지 기업 명단에 올려 애플이나 구글이 앱스토어에서 틱톡 앱을 제거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내 스마트폰에서 틱톡 앱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화웨이처럼 미국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이다. 이런 우려에 마이크로소프트(MS)는 틱톡 인수 협상 소식이 알려지자 하루 만에 협상을 중단했다.

미국이 틱톡을 문제 삼는 실제 배경에는 안보 문제와 함께 미국의 기술 패권에 대한 중국의 도전장을 경계하는 것이라 분석이

나온다. 틱톡은 월간 활성 사용자가 세계 100여 개국에서 약 8억 명이 이르며, 미국 내 이용자는 1억 명에 달한다.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이런 쾌거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미국 IT 기업의 독무대였던 소셜미디어가 중국 기업의 빠른 성장에 밀릴 것이라는 조바심도 커진 것으로 보인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29일 정문회에서 의원들의 반독점 지적에 “지금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앱은 틱톡”이라고 주장했다. 페이스북 산하 인스타그램은 틱톡에 대항하기 위해 틱톡을 모방한 서비스 ‘릴스’를 준비 중일 정도다.

하지만 선부터 제재는 역풍을 몰고 올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틱톡 사용을 막을 것이라고 언급한 뒤 미국 이용자들의 비난이 폭주했다.

다만 미국 동맹국 사이에서도 틱톡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인도는 안보 문제를 이유로 틱톡을 포함한 59개 중국 앱을 금지했고, 일본 여당에서도 중국 앱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달 호주 정부도 “틱톡을 매우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악화일로인 미·중 갈등은 틱톡 사태를 계기로 더 확대할 수 있다. 앞서 미국이 화웨이를 제재 대상에 올리자 중국 내 반미 감정이 고조되면서 애플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으로 변질 바 있다. 하지만 중국이 이미 미국 페이스북, 유튜브, 구글 검색 서비스의 중국 내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인터넷 부문에서의 대책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서영 기자 0jung2@



美 캘리포니아 산불 확산... 주민 대피령
 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체리밸리에서 소방차 옆에 선 소방관이 산불 화염을 지켜보고 있다. 캘리포니아 소방당국은 산불이 팜 스프링스의 북서쪽으로 급속히 번지자 대피령을 확대했다. 미국 기상청은 2일까지 남부에 덮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며 산불 확산 가능성을 경고했다. 체리밸리/AP연합뉴스

미국 성장률 쇼크... 시험대 오른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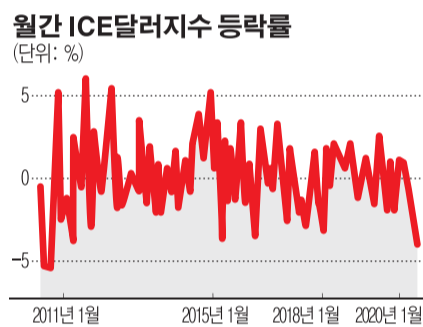
2분기 32.9% 역성장... 떨어진 V형 회복에 달러화 약세 가속

미국이 2분기에 73년 만에 최악의 경제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기축 통화인 달러가 또 시험대에 올라서게 됐다. 미국 경기 침체로 인해 달러에 대한 하방 압력이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상무부는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32.9%(전기대비 연율·속보치)를 기록했다고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는 분기별 성장률 집계를 시작한 1947년 이후 최악의 성장률이다. 1분기(-5.0%)에 이어 2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 역성장을 기록함에 따라 미국은 기술적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

문제는 미국 경제가 침체하면서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 달러의 입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일자 ‘달러 블루스:팬데믹이 미국 통화에 대한 신뢰를 테스트하는 이유’라는 심층 분석에서 달러 가치가 월간 기준으로 7월에 10년 만의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며 달러의 글로벌 역할에 대한 논쟁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31일 미국 인터컨티넨털거래소(ICE)가 산출하는 달러지수는 한때



92.546으로 2018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7월 한 달 간 하락률은 4%로, 월간으로는 2010년 9월 이후 9년 10개월 만의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다. 모건스탠리는 “이런 기조가 당분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에는 안전자산에 자금이 몰리면서 기축 통화인 달러 가치가 뛰었지만, 갈수록 미국 경제와 정치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돈이 역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달러 매도가 계속되는 배경에는 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가 자리하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세가 거세지면서 경제를 떠받쳐야 할 고용 회복도 둔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다 미국 실질금리 하락도 달러 약세를 부추기고 있다.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외한 것으로, 돈의 실질적인 가치 변화를 보여준다. 10년 만기 미국채 금리는 지난달 31일 -1%까지 떨어져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재정 투입으로 물가상승률 기대치는 높아지고 있는데, 대규모 금융 완화가 국제 수익률을 계속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장의 자금은 대부분 금으로 향하고 있다. 달러가 하락하자 국가 신용도에 의존하지 않는 ‘무국적 통화인 금이 대체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 값은 지난달 31일에 한때 온스당 2005 달러까지 상승,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브레드 셋서 미국외교협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잘못된 관리가 달러 가치를 서서히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달 31일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애플, 글로벌 시총 1위 탈환

올 들어 주가 45% 급등... 고성장 기대 대형 기술주에 자금 몰려

미국 애플이 시가총액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 사우디아람코를 제치고 세계 1위를 탈환했다.

애플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어닝 서프라이즈를 연출하고, 4대 1 주식 액면분할을 8월 말 실시한다고 발표하면서 주가가 10.47% 폭등했다. 이에 시총은 1조 8400억 달러(약 2191조 원)로 치솟았다.

반면 지난해 12월 기업공개(IPO)를 하자마자 시총이 2조 달러에 육박하면서 단숨에 세계 1위 기업에 오른 아람코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그에 따른 세계적인 원유 수요 위축, 유가 하락 여파로 올해 주가가 주춤해 시총 세계 1위 자리를 애플에 넘기게 됐다. 지난달 30일 시점에 아람코 시총은 1조 7600억 달러였다.

애플 주가는 올해 약 45% 올랐다. 이에 시총은 올해 들어 지금까지 5375억 달러 늘어났다. 반면 아람코는 1195억 달러 감소했다.

모건스탠리 애널리스트들은 이날 “코로나19 역풍에도 애플은 전 부문과 지역에서 매출이 증가했다”며 “애플의 지난 분기 매출은 전년보다 11% 증가, 시장 전망을 약 14% 웃돌았다”고 분석했다. 일본 니혼게이지신문(닛케이)은 코



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속에서 투자자들이 확실한 성장에 예상되는 대형 기술주에 몰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애플은 올 하반기 차세대 이동통신인 5G에 대응하는 새 아이폰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돼 실적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람코 등 글로벌 에너지 기업은 투자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미국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시총 기준으로 현재 세계 상장사 중 에너지 기업 비중은 약 6%에 불과하다. 정점에 달했던 2009년에는 그 비율이 10%를 넘었다.

코로나19 감염 재확대로 경제활동이 정체되면서 원유 수요 회복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커지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때문에 에너지 업체에 대한 관심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中 인민은행, 알리페이·텐센트 반독점 조사 요청

상하이·홍콩 중복상장 제동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알리바바와 텐센트 산하 핀테크 기업 2곳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중국 규제 당국에 요청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알리바바 산하 알리페이와 텐센트 산하 위챗페이가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업계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중국 반독점 당국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국무원 반독점 당국은 알리페이와 위챗페이에 대해 1개월 전부터 정보를 수집해오는 등 조사를 시작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당국이 인민은행의 권고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조사를 시작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고, 언제 결정할지도 현 시점에서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소식통은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를 운영하는 앤트그룹과 텐센트가 당국의 조사를 막기 위해 정부 관리들을 상대로 로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상하이에 있는 금융산업 전문 리서치 회사 카프로나시아의 제너 카프런 이사는 “중국 규제 당국이 2004년 출범한 이후, 중국 디지털 결제 시장을 가볍게 규제하면서 관망하는 모습을 보여 놀라웠다”면서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를 반독점적 시각에서 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는 코드 스캔만 하면 결제가 가능해 중국인들의 일상이 되었고, 이것이 중국의 캐시리스(현금이 없는) 사회를 앞당기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국 컨설팅업체 애널리시스에 따르면 중국 모바일 결제 시장 규모는 2019년 4분

기에 약 56조 2000억 위안(약 9592조 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알리페이가 55%, 위챗페이는 39%의 점유율을 각각 차지하며 사실상 시장을 독점했다. 앤트그룹과 위챗페이의 사용자 수는 각각 9억 명과 8억 명이 이른다.

이에 당국은 이들 기업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혈안, 인민은행은 다른 중소기업의 모바일 결제 시장 진출을 독려하기 위해 QR코드 결제 서비스 표준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중국 입법부도 11년 만에 처음으로 독점금지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기업의 시장 지배력 판단 기준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통신은 만일 당국이 알리페이와 위챗페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게 되면 알리페이를 운영하는 앤트그룹의 홍콩과 상하이 증권거래소 중복 상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산업은행 회장〉

산은, 아시아나 매각 '진퇴양난'... 이동걸 '묘수' 찾을까

이번주 공식입장 표명

주채권銀 차원 책임론 애매모호 과도한 개입, 계약상 시비 우려 "재실사 당사자 아니다" 선긋기 국유화 현실 땀 손실 책임 불가피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두고 HDC현대산업개발과 금호산업 측이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이번 주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며 현 공방에서 뒤로 빠져있는 산은이 아시아나항공 매각과 관련해 어떤 내용을 언급할지 주목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은 아시아나항공 매각과 관련된 의견을 종합해 이번 주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HDC현대산업개발과 금호산업 측이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두고 상반된 의견을 주고받는 상황에서 주채권은행 차원의 원론적인 내용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HDC현대산업개발에 요구한 사항을 얼마나 수용할 것인가가 관심사다.

입장 발표를 공식화했지만, 산은으로선 입장을 구체적으로 내기도 안내기도 애매한 상황이다. 지난해 4월 산은은 이동걸 회장이 직접 금호그룹 박삼구 회장과 만나 매각을 이끌었을 정도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산은이 수출입은행과 금호그룹의 자구안을 바탕으로 총 1조70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한 것 역시 매각을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HDC현대산업개발과 금호 측이 체결한 계약은 주로 박삼구 회장 일가의 지분을 넘기는 것이 핵심으로, 많은 돈을 빌려준 산은이더라도 계약서에서 주요한 위치에서 벗어나 있다. 5000억 원의 영구채를 출자 전환해야만 다소 책임이 생기나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니다.

매각 과정에서 산은이 뒤에서 버티고 주도적으로 지도·감독했다고 하더라도 산은이 계약과 관련해 책임질 일은 없고, 동시에 과도하게 개입할 여지도 현재로서는 없다. M&A 계약에 정통한 로펌 관계자는 "산은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계약서에도 명시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매매 계약 측면에선 뒤에서 그저 돈을 대주고 보증한 입장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매각 추진 주요 일정

2019년 12월	- HDC현대산업개발·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주식매매계약 체결
2020년 4월	- 현산, 지분 취득 무기한 연기
5월	- 산업은행, 현산에 6월 말까지 인수 의지 표명 요청
6월	- 현산, 채권단에 인수 조건 원점 재검토 요청
7월	- 현산, 인수 상황 재검토 위한 재실사 요구 - 산업은행, 매각 무산 대비 계획 구체화 지시

실제로 산은은 매각 작업이 더딘 최근 자신들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HDC현산이 요구한 아시아나항공의 재실사에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 회장은 같은 식으로 답변했다. 혹여나 매각에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계약상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HDC현산은 여러 입장을 통해 금호 측이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 받았을 때 자신들의 허가를 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채권단의 영구채 주식 전환 시 경영권 지분 변동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일종의 채권은행 개입을 우려하는 지적이었다. 이에 대해 산은은 사전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해명했지만, 매각 상황이 악화하자 초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였던 자금지원이 발목을 잡아버린 셈이다.

한편 현재로서는 산은만 난처해졌다. 코로나 여파로 HDC현산도 급하게 계약을 성사할 이유가 사라졌고, 금호 측도 아시아나항공의 기간산업안정자금 지원 가능성이 열리면서 HDC현산 측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고 맞붙을 났다. 이대로 계약이 불발돼 시장의 예상처럼 산은이 아시아나항공의 지분을 보유한 '국유화'가 현실화되면 향후 손실에 대한 책임에서 산은이 자유로워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추후 입장에서 이에 대한 언급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곽진산 기자 jinsan@

개인카드 소비, 재난지원금發 '반짝 회복'

2분기 223兆 전년보다 3.9%↑
법인카드 사용액은 6.9% 줄어

긴급재난지원금 등에 힘입어 2분기 개인카드 소비가 회복세를 보였다. 다만, 법인카드 사용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부진했다.

2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신용·체크·선불카드의 국내 신용판매 승인금액은 1년 전보다 3.9% 증가한 222조5000억 원이다. 증가율은 작년 2~4분기(5.5~7.3%)에는 못 미쳤지만 1분기(2.5%)보다는 컸다.

개인카드 승인금액 증가율은 1분기에 1.9%에 그쳤지만 2분기에는 6.3%

로 뛰어 승인금액이 185조7000억 원을 기록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월간 카드 승인금액은 올해 3·4월 연속으로 작년보다 감소했다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5월을 기점으로 증가세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2분기 법인카드 승인금액은 36조9000억 원으로 작년보다 6.9% 감소했다. 코로나19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4월에는 법인카드 승인금액이 1년 전보다 24.3% 감소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법인카드 사용 부진은 코로나19의 영향과 함께 일부 카드사가 내실경영을 추진하며 수익성이 낮은 법인카드 마케팅을 줄인 결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업종별 카드 승인금액도 편차가 컸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비 밀집 업종 가운데 도매 및 소매업 승인금액은 작년보다 16.1% 증가했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2.9% 증가했다. 하지만 숙박 및 음식점업 승인금액은 64% 격감했다.

여행사가 속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도 43.2% 감소했고, 교육서비스업은 8.1%, 숙박 및 음식점업은 6.8% 감소했다. 박물관과 테마파크 같은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감소로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승인금액도 5.4% 줄었다.

여신금융협회는 "2분기 카드 소비는 오프라인 소매업종의 매출 감소에도 온라인·배달 구매가 증가했다"며 "자동차 판매량 증가 또한 회복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

www.douzone.com

DOUZONE

ERP, 그 이상의 진화 더존 ERP 10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으로 변화하는 미래를 예측하고, 반복적인 업무는 대신하며, 언제 어디서든 기업의 필요에 따라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단 하나의 ERP-

더존 ERP10과 만나는 순간,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한 차원 더 높아질 것입니다

경영관리 효율은 물론, 기업가치의 극대화까지-
지금, 더존 ERP 10에 주목하십시오!



김광수(오른쪽 두 번째) 농협금융 회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소재 농협금융 본사 화상회의실에서 열린 '제5기 NH미래혁신리더 발대식'에서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참석한 혁신리더 등 임직원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 NH농협금융지주

김광수 회장 "혁신에 대한 열정이 변화 이끌 것"

농협금융 '미래혁신리더' 발대식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김 "혁신리더들의 혁신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패기가 농협금융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2일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소재 농협금융 본사 화상회의실에서 열린 제5기 'NH미래혁신리더' 디지털 발대식에 참여해 임직원들과 이같은 농협금융의 미래와 혁신에 대한 생각을 공유했다.

NH미래혁신리더는 농협금융의 미래와

변화·혁신을 주도할 차세대 리더 육성을 목표로, 은행·보험·증권 등 계열사의 젊은 직원 중심으로 구성해 운영되고 있는 혁신 조직이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화상 면접으로 NH미래혁신리더 16명을 선발했고, 발대식도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이날 김 회장과 전국 각지에서 선발된 혁신리더들은 온라인으로 접속해 농협금융의 미래와 혁신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나경연 기자 contest@

안정적인 도입부터 차별화된 관리까지, 더존이라면 가능합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패러다임 더존을지타워



누구나 쉽게 사용 가능한 DEWS 개발 플랫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종합채용공간 DTEC



전문 컨설팅 그룹이 집중 지원하는 FoEX 구축방법



국제 기준 품질관리 안정성 검증 CMMI Level3 인증

“기업 살려야 할 때인데 또 옥죄기” 재계 ‘냉가슴’

巨興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9월 처리 강행 태세
“경영권 압박·지주사 역차별” 우려... 경제에 악영향

지난 2분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속에서도 다행히 절망적 실적을 피한 재계가 하반기 경영 불확실성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현재 법안 발의된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안의 하반기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탓이다.

특히 임대차 3법이 거여의 압도적 힘으로 일사천리 처리되는 것을 지켜보며 재계는 깊은 우려를 숨기지 못하고 있다. 재계에선 하반기 실적 ‘선방’은 커녕, 오히려 정부로부터 ‘선방’을 맞게 될 처지라는 자조 섞인 소리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에 비하면 기적적인 선방의 결과”라며 “3분기부터 경제가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일 재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이 최근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대표적 ‘기업 규제 법안’으로 꼽히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9월 처리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재계는 정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지난달 19일과 20일 각각 법무부와 공정위에 법안의 보완을 요구한 상황이다.

먼저 다중대표소송제도 개정안에 따르면 발행 주식 총수의 0.01%, 비상장사는 1%만 보유해도 모회사가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자회사에 대해 대표소송이 가능하도록 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100만 원대 주식 보유로 자회사에 소송을 걸 수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결국 경영권 침탈

입법예고안 중 주요 문제조항

구분	조항	문제점
상법	① 감사위원 분리선임	- 이사선임에 대한 의견권 제한, 주식회사제도 근간 훼손
	② 다중대표소송제	- 투기펀드 등 악용 소지, 기업기밀 유출 가능성 - 주주간 이해상충 소지
공정거래법	① 내부거래 규제대상 확대	- 간접보유 규제는 지주회사에 대한 역차별 소지
	② 공익법인 의견권 제한	- 공익법인 보유주식 재산권 침해, 사회공헌활동 위축 소지
	③ 정보교환행위 담합 처벌	- 담합 합의 없는 정보교환도 처벌 가능

이나 단기차익 실현 목적의 투기자본 등에 의해 기업압박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한다.

재계는 감사위원과 감사를 선임할 때 합산 3% 룰 적용을 일원화하는 내용의 ‘3% 의견권 제한규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기업이 감사위원의 수를 전체적으로 줄이거나 감사위원회 제도에서 상근감사제도로 전환하는 등 ‘규제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기업의 투자, 일자리 창출 저해 등으로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입을 모은다.

개정안 가운데 지주회사의 지분을 규제

강화와 관련해 경제단체 관계자는 “일반 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때 지분매입 비용 증가하기 때문에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 여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이 개정안에 따른 지분율 규제(30% 보유)를 적용받았다면, SK텔레콤은 SK하이닉스 주식을 추가로 매입하기 위해 6조2000억 원 가량을 투입해야 한다. 동일비용을 투자에 사용할 경우, 창출 가능한 4만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효과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에 대한 선수직예열화한 계열사 간 거래가 위축돼 거

래효율성이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최근 기업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지분율을 높여온 지주회사들이 오히려 규제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도 나온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현행 지주회사 제도는 기업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제도도입 및 지분율 상향을 유도해 왔는데 정책에 순응해 자회사 지분율을 높인 회사가 오히려 규제를 받는 정책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도 우려가 적지 않다. 경쟁 사업자에 의한 무분별한 고발, 공정위·검찰의 중복조사 등으로 적지 않은 혼란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법적 대응 능력이 미흡한 중소기업에 이번 개정은 상당한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

재계한 관계자는 “기적적인 선방이라는 정부의 자화자찬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경제 반등을 위해선 기업들이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옥죄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송영록 기자 syr@

‘엔택트 채용’ 신입사원과 ‘엔택트 토크’ 김준 사장, 코로나 시대 행복 메시지는

SK이노, 다음 주 ‘CEO와 대화’

김준(사진) SK이노베이션 총괄 사장이 다음 주 신입사원과 ‘행복토크’를 갖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엔택트(비대면)’ 방식을 통해 채용한 신입사원들은 행복토크도 비대면으로 참여하게 된다.



크를 직접 기획해 준비할 예정이다.

올해 CEO 행복토크가 예년과 다른 점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라이브 형식으로 실시된다는 점

이다. 이번 신입사원의 채용과 연수 과정은 코로나19로 인해 채용부터 연수까지 ‘엔택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3월 채용 방식으로 화상 면접을 도입한 데 이어, 신입사원 채용 과정의 핵심적인 부분인 필기 전형도 화상으로 진행하는 ‘온라인 심층역량검사’를 실시했다.

비대면 형식을 통해 뻘친 신입사원들은 7일간의 그룹 연수도 온라인으로 받고 지난달 22일부터 SK이노베이션 계열 신입사원 교육을 받았다. 신입사원 교육 과정의 핵심인 경영 시뮬레이션 교육 ‘SKBS(SK Business Simulation)’ 등만 분사에서 대면으로 열었고, 나머지 교육은 온라인 라이브 방식의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했다.

SK이노베이션은 약 2주간 진행되는 재택 학습이 지루하지 않도록 다양한 포맷으로 구성했으며, 라이브 방송 활성화를 통한 참여도 제고도 꾀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2일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김 사장을 비롯해 SK에너지, SK종합화학 등 SK이노베이션 계열 회사의 최고경영자(CEO)들은 오는 11일 신입사원과 ‘CEO 행복토크’를 진행한다.

SK이노베이션 신입사원들은 이번 일정을 끝으로 연수를 마치고 SK이노베이션 임직원으로 일하게 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CEO와 신입사원 간 격의 없는 소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SK이노베이션 계열 CEO들은 회사생활에 대한 조언은 물론 SK그룹에서 강조하는 ‘행복’에 대한 중요성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사장은 지난해 신입사원 대상 ‘CEO 대화’에서 “꿈과 포부를 갖고 중간에 포기하지 마라”면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회복 탄력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 바 있다. 작년 같은 자리에서 신입사원들이 연수 과정에서 준비한 프로젝트를 발표했던 것처럼 올해 역시 신입사원들이 행복토

해외 주요 항공사 지원 현황		
국가	항공사	지원 내용
독일	루프트한자	90억 유로 지원, 독일 정부가 지분 20% 보유
이탈리아	알이탈리아	35억 유로 투입, 국유화 추진
프랑스·네덜란드	에어프랑스·KLM	국가보증 긴급대출 등 70억 유로 투입
미국	델타·아메리칸 등 여객항공사	임금 지원 프로그램 250억 달러 제공

항공 ‘한시적 국유화’ 추세... “무조건 지원이 답”

코로나 이전 회복까지 4년 전망
루프트한자·알이탈리아 국유화
대한항공 국제선 ‘4분의 1’ 운항
“조건 없는 직접 자금 투입 절실”

전 세계 항공업계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최근 전 세계 항공 교통량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2024년은 되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상보다 길어지는 위기에 각국 정부의 지원은 필수가 되고 있다.

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대한항공은 110개 국제선 노선 중 29개만을 운항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운항 중인 국제선 노선은 21개, 제주항공은 4개에 그친다.

알렉산드르 드 주니악 IATA 사무총장은 지난달 27일 브리핑에서 더 많은 항공사가 재정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구조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IATA는 한국을 비롯해 각국 정부에 항공업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주니악 사무총

장은 3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신을 통해 항공업 보호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주니악 사무총장은 “업계의 부채 부담이 늘어날 것을 고려하면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출 형식의 재정지원의 항공사의 회계상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어서다.

허희영 항공대 교수는 국내 항공업계에 정부의 ‘조건 없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처럼 심사 등을 거쳐 까다롭게 지원하기보다는 한시적으로 항공업계에 조건 없이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은 지급 보증이나 특별 지원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형식과 조건 없이 지원하는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 교수는 “항공업계가 시장에서 자유로운 인수합병(M&A)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면서 “시장에 구조 재편을 맡기되 당장 버틸 수 있도록 정부가 조건 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외국항공사들

은 정부 지원과 일시적 국유화 등으로 생존을 꾀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유럽 최대 항공사 루프트한자에 90억 유로(약 12조 7000억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대신 정부가 2023년까지 지분 20%를 소유한다. 이탈리아 국적 항공사 알이탈리아는 35억 유로 투입과 아울러 국유화를 추진 중이다.

다만 정부 지원이 ‘만능열쇠’는 아니다. 우리나라보다 해고가 자유로운 미국에서는 항공업계의 10월 대량해고가 우려되고 있다. 미 연방정부가 구제금융 자금을 지원하며 내건 고용 유지 기간이 9월로 끝나는 탓이다. 3월 정부의 지원 당시에는 올 가을이면 항공 수요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했으나 예상보다 위기가 길어지면서 대규모 감원이 불가피해졌다.

항공산업이 위기를 벗어난다 해도 코로나19 이전과 달라질 산업구조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영국 BBC방송은 “항공사가 더 많은 좌석을 배치해 가격을 낮추는 전략은 코로나19 이후에는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면서 재정적 위기에 노출되는 등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 내다봤다.
이주혜 기자 winjh@

포스코인터 2019기업시민보고서 지속가능성 정보·ESG 성과 공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19 기업시민보고서’를 발간해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성과를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포스코그룹의 ‘기업시민’ 경영이념 주요 성과를 활동영역(Business, Society, People)별로 구분해 하이라이트로 다뤘다. ‘2019 ESG 우수기업 대상’, ‘우즈베키스탄 진출 한국기업 CSR 최우수상’ 등 기업시민으로서 국내외 우수한 평가를 받은 내용도 수록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올해 처음으로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SASB) 기준에 따른 지속가능성 정보를 선제적으로 공

개했다. 특히 ‘철강생산(Iron & Steel Producers) 산업’ 표준에 대한 정보만 공개해도 되지만 회사는 다양한 사업을 하는 사업 특성을 고려해 ‘산업장비 및 제품(Industrial Machinery & Goods) 산업’ 표준에 대한 정보도 추가했다.

회사의 재무·비재무적 활동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중요성을 고취하고자 영국 PwC의 TIMM 방법론을 활용한 측정 결과도 2년 연속 공개했다.

주시보 사장은 CEO 메시지에서 잭 웰치 전 GE 회장의 “변화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 전에 먼저 변화하라(Change before you have to)”라는 문구를 인용하며 끊임 없이 변화하는 국제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인 변화를 강조하고,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의지를 밝혔다.
김배리 기자 kimstar1215@

LG전자, 온실가스 배출량 2년 만에 22% 감축

2019-2020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권봉석 LG전자 대표이사는 ““지능형 라이프스타일 촉진”,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 실현”, “더 나은 사회 구현”이라는 3대 지속가능경영 지향점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권 대표는 2일 LG전자가 발행한 ‘2019-

2020 지속가능경영보고서 ‘CEO 메시지’를 통해 “디지털 전환 중심의 성장과 변화를 통한 고객가치 창출은 LG전자가 추구하는 비즈니스의 본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LG전자는 이번 보고서에 사회적 책임 이행을 비롯해 경제, 사회, 환경 분야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자세히 소개했다.

지난해 LG전자 건강관리 가전의 매출

은 2016년 대비 약 2.5배 커졌다. LG전자만의 특허기술인 ‘트루스팀(True Steam)’을 적용한 스타일러, 건조기, 식기세척기 등이 성장을 이끌고 있다.

LG전자는 제품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사용단계까지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있다. 지난해 생산사업장 및 사무실서 배출한 온실가스는 2017년 대비 약 22% 줄었다. LG전자는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도 지속 확대해 지난해 수혜자가 300만 명에 달한다.

송영록 기자 syr@

www.신림더밀리안.com

관악이 아껴둔 단 하나의 히든 프리미엄!

신림봉천터널, 경전철 예정으로 여의도와 강남을 더 빠르게!
도보거리 초중고교와 대형마트, 아울렛, 종합병원을 더 가까이!
관악산과 공원으로 둘러싸인 프리미엄 대단지를 만나보세요



1,700
만원대~
(3.3㎡당)

관악구 최고의
합리적가격

**경전철
난곡선**
(예정)

국토교통위원회
심의 중

**역대급
풀옵션**
(2천만원 상당)

전세대
무상제공

주거명품 - 동양파라곤
Paragon
신림 파라곤 더 밀리안

관악에 다시 없을 올세권 아파트/ 신림 파라곤 더 밀리안

더빠른 교통환경 | 경전철 난곡선(예정), 신림봉천터널(23년 개통예정) 등 여의도와 강남을 더 빠르게 잇는 교통특권
우수한 교육환경 | 미성초, 난곡중, 독산고, 문성중, 신림고, 성보고 등 500m 내 도보 통학이 가능한 우수한 교육환경
편리한 생활환경 | 백화점, 홈플러스, 마리아아울렛, 롯데아울렛, 강남삼성병원, 대림성모병원, 보라매병원 등 생활인프라
쾌적한 자연환경 | 신림근린공원, 독산자연공원, 새숲어린이공원, 관악산 등 푸른 자연을 품은 숲세권 프리미엄

시행사 (가칭)신림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최강파트너스 시공예정사 **동명건설산업** 신박사 한국자산신탁(주)

* 본 홍보물에 사용된 CG, 일러스트, 이미지 컷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재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조합원 설립인가 및 주택사업승인 과정에서 사업계획의 규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사업 현황, 사업지 주변 개발계획, 택지 개발지구의 계획 및 교통시설은 관계기관의 홈페이지, 내이바지도 등을 참조하여 작성된 것으로 인·허가 및 정부시책에 따라 변경 및 취소가 가능하며, 실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허가 과정이나 환경여건에 따라 사업계획 및 일정은 당사와 무관하게 추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시거나 해당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작과정상 오탈자가 있을 수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홍보관으로 문의 바랍니다.

8월 오픈 예정 총 790세대(예정) 59㎡/84㎡

문의 **1600-9770**



코로나 장기화에...월 단위 '車구독 서비스' 잘나가네

시간 단위 공유보다 위생 강점
현대기아차·닛산·랜드로버 등
차종·지역·요금제 다양화
온라인시대 달려 새 수익원 부상



현대자동차의 월 구독형 서비스 '현대 셀렉션'.

자동차 업계의 '구독 서비스'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다수가 이용하는 이동수단을 꺼리는 분위기가 자리 잡으면서다. 구독 모델에 익숙한 밀레니얼(1980~2000년생) 세대를 공략하려는 업계의 전략이기도 하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구독 서비스는 최소 1개월가량의 단기 계약을 맺고 차를 일시 점유해 이용하는 방식이다. 서비스 제공사가 차의 정비와 보험을 모두 책임지고, 이용자는 계약 내용에 따라 차를 바꿔 탈 수도 있다. 장기 계약으로 차한 대만 이용할 수 있는 리스, 시간 단위로 차를 빌리는 카셰어링과 차이가 있다.

국내 업계는 이미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1월 현대자동차는 월 구

독형 서비스 '현대 셀렉션'을 선보인 뒤 서비스 확장을 거듭했다. 올해부터는 기존의 단일 요금제에서 벗어나 △베이직(59만원) △스탠다드(75만원) △프리미엄(99만원)으로 요금제를 다양화했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특별 서비스도 내놓았다.

요금제에 따라 이용자는 선호하는 차를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 예를 들어, 베이직

요금제 이용자는 아반떼와 배뉴 중 월 1개 차종을 사용할 수 있고, 프리미엄 요금제 이용 시 더 뉴 싼타페, 그랜저, 팰리세이드, 쏘나타 등 7가지 모델을 월 2회 바꿔가며 이용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기아자동차 역시 '기아 플렉스'를, 제네시스는 '제네시스 스펙트럼'을 운영 중이다. 서비스는 한정된 인원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높은 관심

이 이어지며 각 사마다 상당한 고객이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업계도 최근 들어 구독 서비스 확대를 추진 중이다. 일본 닛산은 구독 서비스 '클릭모비(ClickMobi)'의 제공 지역을 9월까지 2배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재규어 랜드로버는 '피보탈(PIVOTAL)'이라는 이름의 서비스를 이달 새로 출시했고, 토요타와 볼보는 기존의 취약점을 개선한 새로운 구독 모델의 발표를 앞두고 있다.

차 업계가 구독 서비스 확대에 나선 데에는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일차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감염 우려가 커지며 밀폐된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모빌리티 서비스를 꺼리는 현상이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서울시 대중교통 수요는 34% 감소했고, 미국 '우버'의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자는 70%나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신 혼자 이용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위생 관리도 쉬운 구독 서비스의 수요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계약과 배송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 역시 인기 요인이다.

이와 함께 차를 소유하지 않는 경향이 점차 확대된 점도 구독 서비스 확대에 한 몫했다.

현대차글로벌경영연구소는 "최대 차량 소비층으로 자리 잡을 밀레니얼 세대의 트렌드는 '소유'에서 '이용'으로 변화했다"며 "이들은 이전 세대보다 자산의 부족, 편의 추구, 다양한 경험 선호 등으로 구독모델에 개방적"이라 설명했다.

구독 서비스는 성장을 지속하며 자동차 이해관계자의 새로운 수익원으로도 떠오를 전망이다. 완성차 업체뿐 아니라 점차 역할이 축소되는 오프라인 판매 사원의 일거리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볼보는 미국에서 기존 딜러가 참여하는 구독 모델을 운영하며 서비스 운영 수익을 딜러와 공유하고 있다.

현대차글로벌경영연구소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라 구독모델 시장이 지속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딜러와의 상생을 도모하면서도 수익성을 확보하는 사업모델 개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유창욱 기자 woogi@

2분기 실적 단비 된 '집콕 경제'

'반도체·가전·렌탈' 수익 개선
LG 스팀살균 가전 글로벌 인기
SK매직정수기 판매 250% 급등

주요 대기업들의 2분기 성적표가 속속 공개되고 있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위축 상황에서 오히려 호조를 보인 사업이 주목 받고 있다.

2분기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 전망이 산업계 안팎에서 나왔지만, 홈이코노미(집+경제), 비대면(언택트) 수요와 관련된 일부 사업부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의문의 1승'을 챙겼다는 평가다.

2일 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과 LG 등 주요 대기업은 반도체·가전·렌탈 사업에서 상반기 좋은 성적을 거뒀다. 다른 사업부가 팬데믹 영향을 피하지 못한 와중, 해당 사업들이 '가뭄의 단비' 역할을 하며 실적 선방을 이끌었다.

"반도체가 살렸다"는 평이 나온 삼성전자가 대표적이다. 2분기 삼성은 2년 반 만에 반도체(DS) 부분에서 5조 원 넘는 영업이익을 냈다. 덕분에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사업부의 부진에도 영업이익의 8조 원 복귀가 가능했다.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며 '보복소비'

가가전으로 몰린 덕에 LG전자는 '가전 명가'라는 별칭을 지켰다. 특히 위생과 각종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스팀살균 가전이 큰 인기를 끌었다. 실제로 회사에 따르면 스팀살균 기술을 적용한 LG 스타일러는 중국, 대만, 러시아,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수출국에서 전년 대비 판매량이 각각 50% 이상 증가했다.

위생 가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며 수혜를 본 또 다른 사업부는 바로 렌탈이다. 대형가전 구매 시엔 프리미엄 제품 수요가 높아졌지만, 소형가전의 경우 큰돈을 들이지 않고 일정 금액을 내고 서비스를 받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G마켓과 옥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렌탈 서비스 상품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렌탈사업의 경우 코웨이, 쿠쿠시스템 등 중견기업이 시장을 선점해왔지만, 코로나19 이후 성장세가 가팔라지면서 주요 대기업도 적극적인 확장 정책에 돌입했다.

일례로 SK매직은 최근 2분기 올인원 직수업음정수기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250% 증가했다. 정수기, 맥주 제조기, 스타일러 등 다양한 제품군에서 렌탈사업을 키우고 있는 LG전자 역시 상반기 기준 계정 수가 작년 대비 35만 개 늘어 239만 개까지 늘었다. 노우리 기자 we1228@

<기업 PR>

기아차, 유튜브 모집...활동비 300만원·시승차 지원

기아자동차가 '빅(VIK) 튜버' 2기를 모집한다. '빅(VIK) 튜버'는 기아차가 미래의 자동차 관련 '인플루언서'를 키우고, 참신하고 색다른 자동차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마련한 업계 최초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육성 프로그램이다.

'빅(VIK) 튜버'의 'VIK'은 'KIA'를 거꾸로 뒤집은 형상으로 기존의 틀을 깨는 역발상을 통해 "고객에게 차별화한 큰(Big) 가치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기아차는 지난해 '빅(VIK) 튜버' 1기를 모집해 딱딱한 리뷰와 단순 정보 전달 형식을 벗어난 기아차만의 특별한 콘텐츠 42건을 제작했다. 기아차는 올해 '빅(VIK) 튜버' 2기를 모집해 9월부터 12월까지 3

개월간 브이로그, 차박, DIY, 엔터테인먼트 등 장르를 불문하고 기아차와 관련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이다.

기아차는 선발된 '빅(VIK) 튜버'들이 영상 제작에 집중할 수 있도록 △1기보다 2배가량 증가한 활동비 지원(월 100만원, 총 300만원) △'빅(VIK) 튜버' 제작 콘텐츠의 기아차 온드미디어 노출 및 광고 △우수 크리에이터 채널 광고 △시승차 제공 및 탁송비 지원 △기아차 공식 행사 초청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빅(VIK) 튜버'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면 누구나 8월 21일까지 기아차 홈페이지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자료제공 기아자동차



갱년기 여성 건강을 위한*국내 최초 식약처 개별인정 유산균

*건강기능식품 중 프로바이오틱스 기준, 2020년 4월

메노락토 프로바이오틱스

- 기능성원료 L.acidophilus YT1의 인체적용시험결과
- 여성 갱년기 상태지수(KI) 11가지 총점 개선
- 갱년기 삶의 질 평가 지수(MENQOL) 4가지 항목 개선 확인



소비자 상담실 | 080-447-4700
판매사 (주)휴온스 | 제조사 (주)알피바이오



“달걀 이력제, 양계 농가엔 너무 가혹한 이중규제”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

③1 한충엽 ㈜푸른 대표

사육·도축·포장 등 단계별 확인 가능한 이력번호 달걀 표기
지금도 식약처 앱에 산란일자 넣으면 이력 확인할 수 있어
추가인력 등 비용 부담...“고질적 공급과잉 대책부터 내놔야”

올해부터 ‘달걀 이력제’가 시행됐다. 기존 달걀 껍데기에 산란 일자를 표시하던 것에 더해 사육, 도축, 포장, 판매 등의 단계별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소·돼지에 대해서만 시행되던 축산물 이력제를 이를 닭, 오리, 달걀까지 확대 적용했다고 이해하면 쉽다. 소비자는 닭, 오리, 달걀의 포장지에 표시된 12자리의 이력번호를 축산물 이력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 입력하면 생산자, 도축업자 등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이력제를 어진 업체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당초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7월 1일부터 단속을 예고했으나 달걀 생산·유통 관련

단체들의 반발로 단속은 12월 31일까지 유예됐다. 정책 시행과 업계의 반발을 조율할 시간은 5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만난 한충엽(44) ㈜푸른 대표는 이력제가 달걀 생산·유통 업체들에 이중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한 대표는 부친이 40년 운영한 양계장을 물려받은 양계 2세대. 경북 영천에서 양계장을 운영하고 있고, 2016년부터 생산에 더해 유통까지 사업을 확대했다. 현재 대한양계협회 22대 집행부에서 부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한 대표는 달걀 이력제 이전에 산란일자 표시제가 생겨난 배경부터 설명했다. 2017년 8월 터진 ‘살충제 달걀’ 파동이 그



한충엽 ㈜푸른 대표는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달걀 이력제는 이중규제이고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배경이다.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자 정부는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대책으로 마련했다. 2019년 2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생산 농가와 사육환경을 나타내는 6자리가 표시와 함께 산란 일자 4자리(월/일)가 표시

되는 것이다.

한 대표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산란일자 표시를 강제하는 나라는 없다”며 “모든 것을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지나친 제도라는 게 없겠지만, 생산 농가들은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의 주무부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다. 달걀 이력제는 농식품부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농가들은 두 개의 제도가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는 “농림부에서 올해 말까지 일단 단속을 유예기로 했지만, 이중규제이고 잘못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지금도 식약처 앱으로 산란 일자를 넣으면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식약처와 농림부가 합의를 못하고 밥그릇 싸움을 한 결과 농가만 피해를 보는 셈”이라며 “어차피 만들어진 정책이고,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정부도 없앨 수 없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대표는 경북 영천에 있는 자사 양계장에서 하루에 15만 개의 달걀을 생산하고

있다. 생산 농가와 유통까지 합쳐 직원 20명이 일하고 있는데 이력제 시행으로 최소 인력이 2~3명 더 필요해졌다고 토로했다.

이 때문에 달걀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미 양계 농가 업계는 고질적인 공급과잉을 겪고 있다. 국내 하루 달걀 소비량은 4000만 개로 4200만 개량만 생산하면 되는데 현재 농가들은 일일 9000만 개를 생산할 수 있다.

한 대표는 “정부가 할 일은 이런 공급과잉 문제에 대책을 내놓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식량 안보의 관점에서 정부가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유 가격 연동제를 예로 들었다. 2013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시장 수급과 무관하게 우유 생산비만 고려해 원유가격을 조정하는 것으로 우유 수요가 감소해도 낙농가는 타격을 덜 받는다.

한 대표는 “우유처럼 농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한 때”라며 “농가를 파산에 빠트리는 게 아닌, 생산비라도 보전해 주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사진=이재민 기자 aaaa3469@

국가치매연구 착수... 9년간 2000억 투입

연구개발 사업단 출범... 단장에 목인희 서울대 교수
발병원인 규명·조기진단 기술·치료제 개발 등 지원

정부가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9년간 치매 전 주기에 걸친 예방·진단·치료 분야 사업에 1987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치매 극복 연구개발 사업단’도 출범시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국가 치매연구개발 중장기 추진전략에 따라 치매 예방·진단·치료 등에 걸친 종합적 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 위하여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단장 서울대 목인희 교수)’을 출범한다고 2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상반기 사업단(장) 공모과정과 서면 및 구두 평가, 현장실사 등을 거쳐 최종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사업단장을 선정했다.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은 치매 질환 극복기술 개발을 위하여 과기정통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9년간(2020~2028) 총사업비 1987억 원(국비 1694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사업단은 △치매 원인규명 및 발병기전 연구 △치매 예측 및 진단기술 개발 △치매 예방 및 치료기술 개발 등 3개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 치매극복을 위한 핵심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치매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근본적인 원인과 발병기전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병원인 및 기전 규명, 치매오믹스 분석 등 4개 중점 세부기술 분야의 연구를 지원한다.

치매가 진행돼 회복이 어려운 신경세포 손상이 일어나기 전에 대처할 수 있

도록 치매를 발병 전에 예측하거나 발병 초기에 진단하기 위해 혈액·체액 기반 조기진단기술, 영상진단기술 고도화 등 8개 중점 세부기술 분야 연구를 지원한다.

새로운 치매 발병 가설에 기반한 신규 치료제 개발이나, 치매 위험인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예방기술 개발 등 치매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치료제 개발, 뇌내 약물전달 기술 개발 등 3개 중점 세부기술 분야 연구를 지원한다.

세부 분야별 연구과제는 사업단 내에 예비타당성 조사 시 기획된 연구계획을 기본으로 현재 글로벌 동향 등을 반영하여 세부기획안을 마련한 뒤 8~9월 중국내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치매발병을 5년 지연하고 연간 치매환자 증가속도를 50% 감소시키므로써 치매로 인한 국민들의 사회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훈 기자 yes@



SKT 외국인 직원들이 외국인 맞춤 통신서비스 ‘미리(MIRI)’ 출시를 알리고 있다. 사진제공 SKT

SKT, 외국인 맞춤 통신서비스 ‘미리’ 출시

선납 방식... 최대 500만원 충전
T멤버십 등 후불제 서비스 혜택

SK텔레콤은 2일부터 선납 방식에 익숙한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 원까지 충전 가능한 통신서비스 ‘미리(MIRI)’를 선보인다.

‘미리’는 월정액 요금을 미리 납부할 수 있는 선불 서비스와 선택약정할인, 공시지원금, 멤버십할인 등 통신 혜택을 제공하는 후불 서비스의 장점을 한데 모은 ‘선납’ 서비스다. 미리 충전해 둔 금액을 소액결제, 콘텐츠 이용료 등에도 자유롭게 쓸 수 있어 기존의 선불 서비스와는 차이가 있다.

‘미리’는 1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충전해두고 통신요금은 물론 단말 할부금, 소액결제, 콘텐츠 이용료도 자동 납부할 수

있다. 이용 기한없이 충전된 금액을 계속 쓰다가 SK텔레콤 서비스를 해지할 시 잔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또, 10만 원 이상을 선납하면 고객에 따라 휴대폰 결제 한도를 최대 60만 원까지 제공한다. 쇼핑, 배달 앱 결제 금액이 ‘미리’ 충전 금액에서 차감돼 간편하다.

후불 요금제를 사용해야만 받을 수 있었던 T멤버십, 선택약정할인(25%), 공시지원금, 바로 로밍 등 모든 통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후불로만 이용할 수 있었던 5G 요금제도 가입 가능하다.

SK텔레콤을 이용하는 외국인은 본인 휴대폰에서 114로 전화를 걸면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개통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연내 T월드는 물론 점프AR·VR과 같은 5G 서비스 앱에서도 영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재훈 기자 yes@

우체국 ‘종합금융시스템 기관’ 탈바꿈한다

우분, 2023년까지 2064억 투입... AI 등 신기술 도입 시스템 전면 재구축

우체국이 AI·빅데이터 등이 접목된 ‘차세대 금융시스템 기관’으로 탈바꿈한다. 올해 10월 사업자를 선정 후 2023년까지 2064억 원을 투입해 24시간 365일 무중단 서비스를 펼치는 프로젝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우정)는 금융권 디지털 전환 트렌드에 맞춰 우체국 금융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는 ‘차세대 종합금융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우정본부는 이번 차세대 사업 구축으로 우체국이 고객 접점이 되는 채널시스템에서부터 금융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계정계 시스템(예금·보험 등 금융거래를 처리하는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한다. 노후화된 시스템은 인공

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도입해 기술 변화에 선제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바뀐다. 신기술 기반의 개방형 플랫폼 구축을 위해 서비스형인프라(IaaS), 서비스형 플랫폼(PaaS) 등 비즈니스 확장이 유연한 클라우드 환경도 도입한다. 특히 아직 타 금융권에서 사례를 찾기 어려운 계정계, 정보계 등 코어시스템을 포함한 모든 금융시스템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해 금융권의 클라우드 도입을 선도하게 된다.

우정본부는 차세대 시스템의 목표는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객 중심의 디지털 혁신’이라고 설명했다. 차세대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구축되면 고객은 오프라인을 통해 창구, 모바일 등 대면/비대면

채널 간 중단 없이 상담과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머신러닝 기반의 챗봇 도입으로 24시간 365일 상담서비스도 이용하게 된다.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상품을 추천받고 자산관리서비스 등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비대면 채널로 우체국 방문 예약을 하고 비대면 채널에 고객 친화적인 UX/UI를 적용하는 등 고객의 사용자 경험 또한 크게 향상된다.

직원도 빅데이터, 인공지능, RPA 등 디지털 기술을 업무에 적용해 상담과 업무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종이 없는 디지털 창구로 서류작업도 대폭 줄어들게 되면서 업무 효율성과 편의성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이재훈 기자 yes@

삼성SDS-NHN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협력 강화

삼성SDS는 NHN과 함께 신규 사업 기회 발굴과 고객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 사업협력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두 회사는 지난달 31일 클라우드 서비스와 데이터 분석, 사이버보안, 블록체인의 분야 공동사업 확대를 위한 사업협력협약(BCA)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에는 양사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해 NHN 클라우드 기반 삼성SDS 데이터분석과 보

안솔루션 제공, NHN 간편결제에 삼성SDS 블록체인의 적용 사업 협력 등이 포함됐다. 지난 5월 클라우드 분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는 두 회사는 디지털 신기술 협력 및 공동사업 추진 방안을 구체화하여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정기협약체제를 운영하면서 이번 협약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새로운 사업기회를 꾸준히 발굴하면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조성준 기자 tiatio@

“여름 특수 뺏길라” 편의점 3월 아이스크림 대방출

인건비 없앤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반값 공세’ 대응
CU, 페이코 결제 美 탈렌티 젤라또 등 130종 50% 할인
GS25, 하겐다즈·나뚜루 2+1 행사... 프리미엄 차별화

편의점이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대응해 빙과류 할인에 나선다. 최근 증가하는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들은 인건비 부담이 없고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형태로 고정비가 줄어들어 반값 아이스크림 시대를 열었다. 이로 인해 편의점 아이스크림 수요가 대거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으로 옮겨가는 현상이 발생했다. 사실상 편의점의 아이스크림 여름 특수가 실종된 것이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CU(씨유),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주요 편의점들이 대대적인 아이스크림 할인행사를 마련하고 아이스크림 할인점의 공세에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CU는 이달 1

일부터 페이코인(Paycoin)으로 결제하면 빙그레 메로나부터 미국에서 수입한 탈렌티 젤라또까지 총 130여 가지 아이스크림(하겐다즈, 벤앤제리스 등 일부 제외)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이번 이벤트는 1+1 증정행사 또는 SKT 멤버십 할인 혜택(1000원 당 100원 할인, 통신사 등급에 따라 차등) 중 한 가지를 중복 적용할 수 있어 최대 67%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2+1 증정행사 대상인 아이스크림에 페이코인 50% 할인을 적용하면 아이스크림 3개를 1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사진>

GS25도 8월 한 달간 뽕베레 2종을 1+1(바닐라, 초코)으로 판매하는 행사를 시작으로 매주 금·토·일요일에 삼성카드



유어스팔빙수, 수박화채빙수, 인절미빙수, 유어스세부망고빙수 등 빙수 구매 시 하나를 담으로 증정하는 1+1 행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하겐다즈 전 상품 2+1, 나뚜루 파인트 2+1 행사도 진행한다.

세븐일레븐은 인기 소프트 아이스크림 5종(매일우유맛소프트콘, 뽕베레딸기 등)을 카카오페이 페이코인으로 결제 시 결제한 금액의 50%를 포인트로 페이백해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이 외에도 총 100여 종 아이스크림 상품을 대상으로 1+

1, 2+1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마트24 역시 매출 베스트 5종(미숫가루소프트콘, 플라포아이스바닐라라떼, 더블비안코, 메로나, 스크류바)을 아이스크림 판매가 높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삼성카드 결제 시 50% 할인 한다. 이와 함께 흡타입 아이스크림 3종을 30% 할인 하고, 140종의 아이스크림에 대해 1+1, 2+1, 담증정 행사에 나선다.

편의점 업계의 아이스크림 가격 할인 행사는 8월 성수기 공략도 원인이지만 아이스크림 할인점의 공세에 따른 공여지책이기도 하다.

실제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반값 아이스크림을 앞세워 매출을 확대하고 있다. 아이스크림 할인점 ‘픽미픽미아이스’는 2018년 론칭해 현재 300개로 점포 수를 늘렸다. 지난해 2월 사업에 나선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 전문점 ‘응응스크르’도 점포 수를 400개로 확대했다. 이들은 출점 제한을 받지 않는데 다 편의점 인근에 입점하는 경우가 많다. 편의점 입장에서는 고객을

빼앗기기 쉬운 구조인 셈이다.

최근 들어 편의점들이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도 아이스크림 할인점과의 차별화 전략이다. CU는 지난 달부터 미국의 프리미엄 젤라또 아이스크림 ‘탈렌티’ 2종과 저칼로리 아이스크림 ‘무무팜’ 2종 판매에 나섰다. 세븐일레븐의 경우 벨기에 브랜드 ‘고디바’와 미국 브랜드 ‘바세츠’ 등을 선보이고 있다.

GS25 역시 작년 8월 세계 1위 파인트 아이스크림 ‘벤앤제리스’를 최초 유치했다. 또 자체 구축한 냉동배달시스템을 활용해 ‘벤앤제리스’ 5종과 자체 브랜드(PB) 빙수 4종 등 총 9종을 ‘요기요’ 또는 ‘카카오톡 주문하기’를 통해 배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무인 아이스크림할인점이 반값을 내세우면서 편의점 아이스크림 성수기가 예년만 못하다”며 “할인전략을 통해 점포 수익을 확보하는 동시에 이들과 경쟁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클린백 #홈카페... 챌린지, 마케팅으로 진화

K2, 쓰레기 되가져오기 캠페인
남양유업, 커피 레시피 이벤트
놀거리 제공하며 제품 홍보도



유통업계에 챌린지 마케팅 바람이 거세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번진 ‘덕분에 챌린지’, ‘플라워 버킷 챌린지’, ‘스테이 스트롱 챌린지’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미지 제고 등의 목적으로 진행되는 챌린지뿐 아니라 소비자의 능동적 참여로 제품을 홍보하는 이색 챌린지도 활발하다. 얼핏 공모전과 유사하지만 ‘챌린지’는 참여 과정에 재미를 더한 것이 특징이다. 공모전은 정해진 양식을 채워 공식 홈페이지에 응모하는 등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챌린지는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SNS에 올리거나, 댓글을 남기는 방식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

화장품 로드숍 토니모리는 지난 4월 윈더 세라미드 모찌 토너의 새로운 기획 세트 출시를 기념해 ‘쫀쫀쫀쫀 챌린지’를 진행한 데 이어 이달 ‘1일 1팩 챌린지’를 진행 중이다. 토니모리는 기

준에 진행하던 단순 프로모션형 이벤트가 아닌 소비자가 즐거움을 느끼며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연이어 챌린지 마케팅을 기획했다.

올해 새롭게 챌린지 이벤트를 선보이는 사례도 늘고 있다. 남양유업은 고객 참여 이벤트로 기존에 UCC 공모전을 진행하던 것에서 나아가 올해는 SNS를 활용한 챌린지 이벤트를 진행했다. 남양유업이 지난 4월 진행한 ‘홈카페 챌린지’는 루카스나인 라떼 제품을 활용해 집에서 맛있게 커피를 마실 수 있는 본인만의 레시피를 공유하는 이벤트다. 레시피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해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개인 SNS

계정에 올리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기존 공모전보다 많은 참여자를 이끌어 내며 흥행에 성공했다.

아웃도어 브랜드 K2는 ‘작은 쓰레기까지 되가져오기’를 실천하는 ‘클린백 챌린지’<사진>를 지난달 31일까지 진행했다. 클린백을 활용한 환경 보호 인증 사진을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올리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프리미엄 유아용품 전문 기업 스토크도 아이슈의 자로 알려진 ‘트립트랩’을 활용하는 자신만의 방법을 필수 해시태그(#트립트랩챌린지 #스토케 #트립트랩)와 함께 공유하는 ‘트립트랩(TRIPP TRAPP) 챌린지’ 캠페인을 20일까지 진행한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도 소비자 참여 이벤트나 공모전은 있었지만, 즐기는 느낌보다 경쟁한다는 이미지가 강했다. 하지만 챌린지는 가볍고 쉽게 즐길 수 있는 참여 이벤트로 사람들이 ‘브랜드와 제품을 가지고 즐겁게 놀다’라는 느낌으로 관심을 보이고 실제 많은 참여가 이뤄지고 있다”라며 소비자들에게 재밌는 놀 거리를 제공하며 제품 홍보까지 할 수 있는 마케팅이라고 말했다. 박미선 기자 only@



홈플러스, 국내 첫 호주 ‘올위스 와인’ 판매
홈플러스는 호주 최대 유통 기업 올위스 그룹과 협업을 통해 국내 최초로 ‘올위스 와인’ 15종을 전국 114개 주요 점포에서 선보인다고 밝혔다. 모델들이 2일 서울 등촌동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올위스 와인’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제공 홈플러스

세계적 디자이너 ‘툼릭스’ 표 카페 국내 상륙

현대백화점 ‘더 마티니’

현대백화점이 압구정본점에 세계적 산업 디자이너 톼릭스가 직접 디자인한 카페를 국내에 처음으로 선보인다.

현대백화점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본점 4층에 국내 최초로 ‘툼릭스, 카페 더 마티니(TOM DIXON, CAFE THE MARTINI)’를 오픈했다고 2일 밝혔다. 톼릭스는 영국을 대표하는 산업 디자이너로, 세계 3대 디자인 박람회 중 하나인 프랑스 ‘메종앤오브제’에 특별 디자이너로 참여하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철제 뼈대 위에 왕골을 감아 만든 ‘S체어’, 청동 구리로 디자인한 둥근 조명인 ‘미러볼’ 등이 그의 대표작이다.

툼릭스, 카페 더 마티니는 현재 영국 런던, 이탈리아 밀라노, 홍콩 등 5개국에 10여 개 매장이 있다. 아시아에선 홍콩에 이어 이번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이 두 번째 매장이자다.

압구정본점에 문을 연 톼릭스, 카페 더 마티니는 총 90㎡(약 27평) 규모로, 매장 내 의자·테이블·조명·식기 등의 집기는 모두 톼릭스가 직접 디자인한 제품들로 채웠다. 카페에선 티·커피·디저트 등 식음료(F

&B)는 물론, 톼릭스가 직접 디자인한 조명과 가구, 인테리어 소품 등을 판매한다.

툼릭스, 카페 더 마티니가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에 국내 1호 매장을 열기로 한 것은 명품 백화점으로서의 압구정본점 위상과 무관치 않다. 압구정본점은 명품은 물론 식품까지 국내 최고 수준의 브랜드 경쟁력을 갖춘데다, 단위 면적당 매출도 국내 백화점 가운데 가장 높다.

여기에 해외 여행이나 해외 거주 경험이 많아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고객층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입점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백화점은 지난해부터 압구정본점에 서만 경험할 수 있는 공간과 매장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지난해 1월 지하 1층 식품관에 선보인 와인 전문 매장 ‘와인웍스’가 대표적이다.

와인웍스의 영업 면적은 국내 백화점 와인 매장 중 가장 큰 330㎡(약 100평)로, 레스토랑·와인바·라운지 등이 결합된 파격적인 매장 구성이 특징이다. 국내 백화점 최초로 프랑스 브랜드 에르메스 북쪽 매장과 국내 최대 규모 롤렉스 매장 등 차별화된 명품 매장을 연이어 선보이기도 했다.

박미선 기자 only@

“루테인이 3900원”... 이마트 ‘국민건강 프로젝트’

2만5000개 50% 할인가 행사

이마트가 온 국민의 건강을 챙기는 ‘국민건강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국민건강 프로젝트’는 매일 부담없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우수 건강기능식품 업체와 협업해 합리적인 가격대의 건강식품을 선보이는 캠페인이다.

이마트는 국민건강 프로젝트 1차 상품으로 ‘국민 루테인(500mgX30캡슐)’을 선보이고, 출시 기념으로 2만5000개 한정수량을 ‘리미티드딜’로 정사가 대비 50% 할인한 3900원에 판매한다. 행사 종료 후에는 정사가 7800원에 판매할 예정이다.

국민 루테인은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 기업인 코스맥스엔비티에서 생산하며, 캡

슐 1개(500mg)당 루테인 1일 섭취 최대 함량 20mg을 담았다. 또한, 비타민 A,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12, 비타민 E, 베타카로틴, 셀렌, 아연 등 8가지 기능성 성분을 추가로 넣었다. 개별 PTP(압박포장: Press through Package) 포장으로 공기를 차단해 위생적이며 휴대와 보관 또한 간편하다.

이마트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식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국민건강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실제 이마트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매출은 지난해 13.6% 증가하며 신선/가공식품 카테고리 중 매출성장률 1위를 차지했다. 올해(1/1~7/26)도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그 신장세는 더욱 커진 15.8%를 기록하고 있다.

김가는 이마트 건강기능식품 바이어는 “일상생활과 뗄 수 없는 전자기기 사용의 영향으로 안구건조 등 눈의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람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마트는 국민 루테인을 시작으로 국민건강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시중銀 '코로나 피해' 가계·中企 지원 'KP' 잇따라 발행

(외화표시채권)

작년 '그린본드'서 '소셜본드' 우회 기업·신한 등 5억 달러 규모 발행 글로벌 투자 수요에 더 늘어날 듯

올해 주요 시중은행 외화채권 발행내역



발행자	발행일	만기일	발행규모	쿠폰금리	비고
기업은행	6월 22일	2025년 6월 22일	5억 달러	1.04%	소셜본드
신한지주	7월 10일	2026년 1월 10일	5억 달러	1.35%	소셜본드
국민은행	7월 15일	2025년 7월 15일	5억 유로	0.06%	지속가능
NH농협은행	7월 20일	2025년 7월 20일	5억 달러	1.25%	소셜본드

최근 국내 시중 은행들 사이에서 외화표시채권(KP) 발행이 이어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본 가계와 중소기업에 지원을 위한 은행들의 자금 수요가 KP 발행으로 이어진 것이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의 KP 발행은 6월 말을 기점으로 약 한 달째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 6

월 22일 기업은행이 5억 달러(5955억 원) 규모의 5년 만기 KP를 발행한 이후 7월 10일 신한지주가 5억 달러 규모의 달러 표시 KP를, 같은 달 15일 국민은행이 5억 유로 규모 KP를 발행했다. 뒤이어 20일 NH농협은행도 5억 달러 규모 5년 만기 KP를 발행했다. 올해 연초 이후부터 5월까지만 해도 KP 발행은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주를 이뤘으며 시중

은행들은 드문드문 발행을 진행했다. KP란 한국 기업이 달러 등 외화 조달을 위해 외국환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기업이 달러나 유로화 표시 KP를 발행하면 쿠폰(이자)은 미국 또는 유로존 금리를 기준으로 지급된다. KP 발행시장은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이 커져 한동안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투자심리가 개선되

고 있는 데다 최근 가계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은행들의 자금 수요가 높아지면서 KP 발행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시중은행이 발행한 KP 모두 사회적 책임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채권 형태다. 이는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최근 전체 KP 발행 시장의 흐름이기도 하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ESG 채권은 7월 말 기준으로 전체 KP물 발행액의 28%를 차지한다. 특히 올해는 ESG 채권 중에서도 소셜본드가 61%를 차지해 그린본드와 지속가능채권에 집중됐던 지난해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

김윤경 국제금융센터 전문위원은 "작년에는 시중 은행들의 후순위 및 신종자본

'그린본드'나 친환경과 친사회적 프로젝트에 쓰이는 '지속가능 채권'의 형태가 대부분이었다"면서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 소외계층, 스타트업 등의 지원에 사용될 소셜본드 발행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에도 시중은행의 KP 발행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최성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ESG에 대한 글로벌 투자 수요 확대가 국내 은행들의 채권 발행을 증가시키고 있다"면서 "글로벌 투자심리가 개선됐고, 은행들의 높은 자금 수요 감안할 때 하반기에도 은행 및 금융지주의 KP 발행은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싱가포르투자청, 오피스 시장 호조 '함박웃음'

서울파이낸스타워, 도심권역 공실 감소 영업의 10% 상승 강남금융센터 영업의 감소에도 빌딩값 오르며 순익 증가

싱가포르투자청이 소유한 서울 대형 오피스빌딩이 얻었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서울 도심에 위치한 서울파이낸스타워는 지난 3년간 줄어들던 영업이익이 상승세로 돌아섰고, 반대로 강남금융센터(강남파이낸스센터)는 2019회계연도 영업이익이 5년 만에 전년보다 감소했다. 서울 도심권역 오피스 공실이 1년 새 절반 가까이 줄어들면서 서울파이낸스센터의 수익 개선이 이뤄졌다.

서울파이낸스센터-강남금융센터 실적 비교

구분	영역	2019회계연도	
		액수(억 원)	전년비
서울파이낸스센터	영업이익	335	9.97%
	영업수익	505	5.33%
	순이익	178	흑자전환
강남금융센터	영업이익	840	-1.94%
	순이익	514	6.85%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대규모 이전 수요가 발생한 영향이다. 순이익도 2019년 178억 원으로 2018년 395억 원 순손실 대비 크게 개선됐다. 2018년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가 전년 대비 716억 원 감소하며 당기순손실이 크게 발생했다. 2019년 투자부동산 공정가치는 전년보다 2억 원 늘어난 데다가 영업이익 개선까지 이뤄지며 순이익이 발생했다.

반면 강남권역(GBD)에 위치한 강남금융센터는 이익 증가세가 주춤한 모습이다. 강남금융센터는 2019회계연도에 전년보다 0.06% 줄어든 1062억 원 영업수익을 기록했다. 이 기간 영업이익은 840억 원으로 1.94% 줄었다. 영업이익과 영업수익 모두 2014년 이후 첫 감소다.

하지만 순이익은 자산가치 상승으로 오히려 늘었다. 강남금융센터의 2019년 당기

순이익은 514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3억 원(6.8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가 전년보다 46억 원 늘어나며 줄어든 영업이익을 매끈 셈이다.

오피스업계는 코로나19 충격에도 저금리 기조와 불안한 유동성으로 서울 대형 오피스 시장이 호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도심권역의 경우 늘어난 공급량으로 인해 강남권역 대비 공실률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실제 지난 2분기 기준 CBD 공실률은 약 15.0%로 다시 증가했고, GBD 공실률은 3.5%로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이한국 JLL중개법인 대표는 "CBD의 경우 최근 공급 물량이 늘어난 데 비해 임차 수요가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다만 저금리 영향이 워낙 커 매매 유인은 있기 때문에 공실은 다소 늘어나도 매매가 격은 강보합하는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파이낸스센터는 'SFC (Labuan) Pte Ltd.'(39.84%), 'Reco Yoojin Pte Ltd.'(39.84%), 'Seoul FC Pte Ltd.'(20.32%) 등 세 회사가 지분을 나눠 갖고 있다. 이 세 회사는 싱가포르투자청 산하 'Reco SFC Pte Ltd.'의 100% 자회사다. 강남파이낸스센터는 싱가포르투자청 산하 'Reco Kangnam Pte Ltd.'와 'Reco KBD Pte Ltd.'가 각각 지분 50.01%, 49.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신철 기자 camus16@

코로나 이후 상승률 '톱20' 바이오 종목 18개 '씩쓸이'

평균 680% 급등... "실적 무관 과열" 투자 주의보

바이오 관련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주가 상승률 최상위권을 대부분 점령했다. 다만 실제 성과와 무관하게 이상 급등락을 보이는 등, 과열 양상이 뚜렷한 종목도 다수 있어 투자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일(1월 20일) 이후 현재(지난달 31일)까지 코스피·코스닥 시장 종목의 주가 상승률을 살펴보면, 상위 20개 종목 중 바이오 관련주가 18개로 집계됐다. 이들 18개 종목의 평균 상승률은 680.50%에 달했다.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신풍 제약 우선주인 신풍제약우로, 해당 기간 5950원에서 16만 원으로 약 반년 만에 주가가 약 27배로 폭등했다. 상승률은 2589.08%다. 신풍제약 보통주도 887.12%의 상승률을 기록해 3위를 차지했다. 이들 종목은 단순히 많이 올랐을 뿐만 아니라 거래금액도 극단적으로 늘어 존재감을 과시했다. 신풍제약은 이 기간 일 평균 거래금액 2736억 원을 기록해 6위를 차지했다. 이는 LG화학, 네이버 등 코로나19 이후 주가가 급등한 대기업들보다 높은 순위다. 인지도를 비교하면 이례적인 평가가 나온다.

거래소에 따르면 제약·의료기기

건강관리 업종(239개 종목)의 시가총액은 237조7664억 원으로 코로나19 국내 발생 직전보다 97조3137억 원(69.29%) 급증했다.

문제는 이들 종목 대부분이 투자심리를 자극한다는 점 외에 실적 개선이나 신약 개발 성공 등 명확한 성과가 없다는 점이다.

상승률 20위권 내 18개 종목 중 증권사 3곳 이상이 투자자의견·목표주가를 제시한 곳은 진단키트 업체 씨젠(상승률 7위)과 백신 전문기업 SK바이오사이언스의 모기업인 SK케미칼, SK케미칼우뿐이다.

그 외 15개 종목 중 그나마 증권사 분석 보고서가 1개 이상 있는 곳도 5곳(백아이씨에스, 휴마시스, 알테오젠, 메드팩토, 엘앤씨바이오)뿐이다. 나머지 10개 종목은 현재 증권사들의 커버리지에서 애초에 제외된 셈이다.

특히 이들 종목은 크게 올랐을 뿐만 아니라 주가 변동성이 극도로 커진 상황이라 투자에 신중히 해야 한다.

신풍제약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 회사의 영업이익은 20억 원으로 대형 제약사 한미약품 영업이익(1039억 원)의 약 52분의 1 수준이지만, 시총은 한미약품(3조1206억 원)을 오히려 5000억 원 이상 넘어섰다. 주가수익비율(PER)은 무려 1971배다.

박기영 기자 pgy@

SK바이오팜, 기관 보유 26만株 풀린다

상장 한 달 '의무보유기간' 끝나 주가 횡보·거래량도 많이 꺾여 물량 쏟아지면 주가 영향 줄 듯

지난달 2일 주식시장에 상장하며 큰 관심을 받았던 SK바이오팜이 2일로 상장 한 달을 맞은 가운데 초반의 열기가 많이 꺾인 모양새다. 주가는 횡보하고 거래량도 초반에 비해 많이 꺾인 상황에 기관이 보유한 주식 26만 주가 시장에 풀릴 예정이어서 향후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기관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SK바이오팜 주식 26만 2500주가 의무보유기간을 끝내고 3일부터 시장에 나온다. 기관투자자들이 SK바이오팜 공모 당시 배정받았던 총 1320만 주의 일부다.

이 중 631만 주는 이미 상장과 동시에 거래됐지만, 나머지 690만 주는 상장일로부터 짧게는 15일부터 길게는 6개월까지 의무 보유 기간이 설정됐다. 기관투자자가 공모주를 많이 배정받는 조건으로 상장 이후 일정 기간 공모주를 보유하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앞서 상장 보름 뒤에 1만 3700주가 가장 먼저 나왔고, 한 달 동안의 의무보유기간이 설정됐던 26만 2500주가 이번에 시장에 풀리는 것이다.

이번 주식은 현재 유통되고 있는 SK바이오팜의 주식 1024만 주의 2.56% 수준이다. 하지만 이같은 물량은 최근 SK바이오팜의 하루 거래량과 맞먹는 수준으로 한꺼번에 쏟아질 경우 주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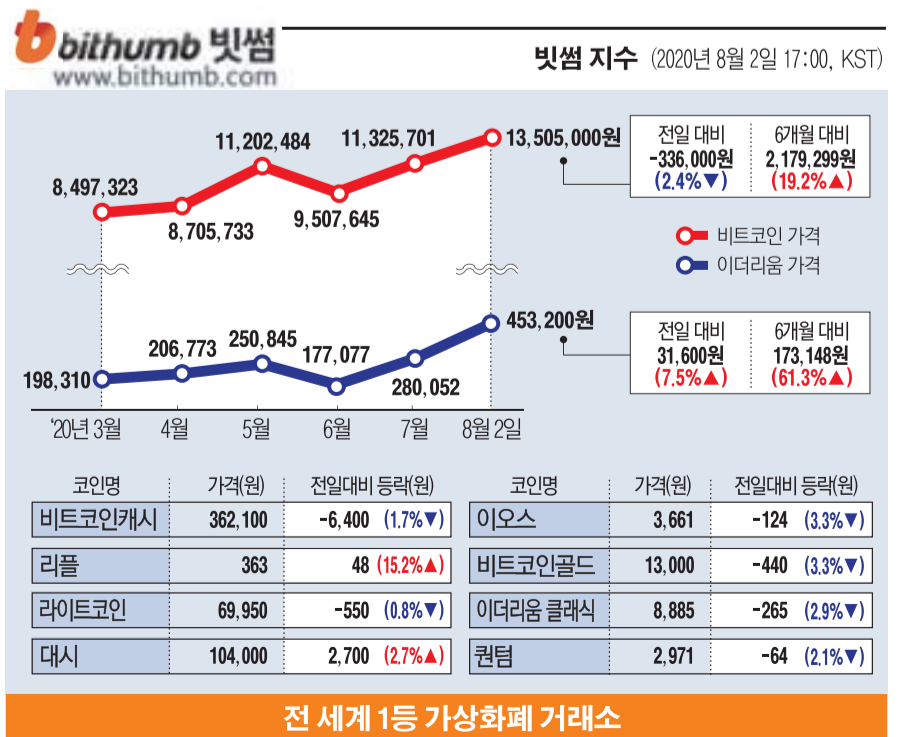
SK바이오팜의 거래량은 상장 넷째 날인 지난달 5일에는 1000만 주를 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크게 떨어져 지난 달 31일

에는 21만 주 수준까지 줄었다. 현재 SK바이오팜의 주가는 18만 2000 원으로 공모가(4만 9000원)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수익률은 270%에 달한다. 시가총액은 14조 2000억 원으로 신한지주(14조 3000억 원)에 이어 20위에 올라 있다.

하지만 고점이었던 26만 9500원(7월 7일 장중)에 비하면 32% 떨어진 수준이다. 상장 이후 한 달 동안 개인이 328만 주를 사들였고 기관은 93만 주를 매입한 반면, 외국인은 415만 주를 내다 팔았다.

정명지 삼성증권 투자정보팀장은 "26만 주는 적은 물량은 아니다"면서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심리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과 같이 상장 뒤 주가가 횡보하거나 빠지는 상황이라면 주가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여의도 대형 오피스 ‘임차인 모시기’ 치열한 물밑 경쟁

파크원 이달 준공... 임대료 3.3㎡당 20만 원 넘어 공실 우려
포스트타워는 주변 대비 저렴한 임대료 앞세워 증권사 공략
IFC “관리비 70% 서울시가 지원” 국내외 금융사 유치 돌입

서울 여의도에 ‘마천루 삼국지’가 열린다. 임차인을 모시기 위한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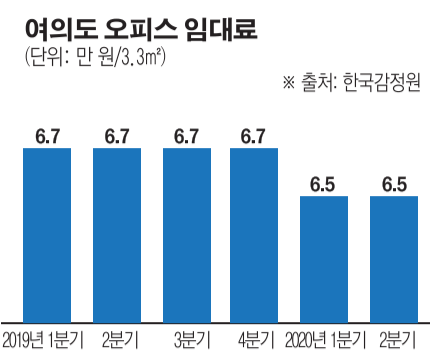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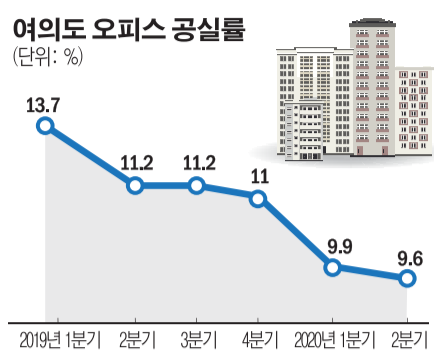
여의도엔 연말까지 파크원(최고 69층)과 포스트타워(33층) 등이 잇따라 준공한다. 기존에 있던 서울국제금융센터(IFC·55층)에 더해 여의도의 스카이라인이 달라진다. 대형 오피스 건물이 잇따라 준공되는 만큼 임차인을 구하려는 경쟁도 더 뜨거워졌다.

파크원은 이달 준공을 앞두고 있다. 파크원은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부산 해운대 엘시티에 이어 한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건물(318m)이다. 그만큼 파크원 준공은 오피스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파크원은 A동과 B동으로 나뉘었다. 이 가운데 B동은 일찌감치 임차인을 찾았다. 현대백화점과 페어몬트 호텔이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파크원에 들어서는 현대백화점 여의도점은 서울 시내 백화점 가운데 최대 규모다. B동을 소유한 NH투자증권도 기존 사옥을 정리하고 B동에 새 사무실을 마련한다.

문제는 A동이다. 연면적은 53층짜리 B동(17만316㎡)보다 69층짜리 A동(22만2989㎡)이 더 넓은데 마땅한 임차인을 못 찾고 있다.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금융사 및 IB(투자은행) 등을 대상으로 임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임대업계 관계자도 “증권기업을 대상으로 접촉 중이다”



뚜렷한 성과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포스코건설은 공실 문제 해소를 위해 공유 오피스 업체 패스트파이브에도 입주를 제안했으나 확답을 받지 못했다. 일각에선 3.3㎡당 20만 원이 넘는 임대료 부담 탓이 임차인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니냐고 추측한다.

‘임차인 모시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애타는 건 포스코건설이다. 포스코건설은 시공권을 따내면서 3년간 책임 임차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임차인이 모집되지 않으면 공실 임대료를 포스코건설이 부담해야 한

다. 포스코건설과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포스코 계열사가 파크원으로 이사할 수 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연말 준공하는 포스트타워는 시간이 남은 만큼 상대적으로 여유롭다. 포스트타워 건설 사업은 여의도 우체국을 복합 개발해 연면적 약 6만8000㎡, 지하 4층-지하 33층으로 짓는 프로젝트다.

포스트타워는 주변 오피스 건물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여의도 증권사 가운데선 KTB증권이 포스트타워에 입주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고 알려졌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포스트타워는 아직 준공까지 시간이 남아 뚜렷한 임차인 모집 움직임은 없다”며 “4분기가 되면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존 오피스 건물들도 경쟁 심화에 대비하고 있다. 한때 여의도 오피스 시세를 좌우했던 IFC가 대표적이다. 여의도 오피스 시장은 IFC가 완공된 2012년 공실률이 두 자릿수대까지 치솟는 ‘IFC 쇼크’를 겪었으나 IFC 공실률이 안정되자 여의도 오피스 공실률도 6.7%로 떨어졌다. IFC도 공실 해소에 거의 성공하면서 한 자릿수대로 공실률을 관리하고 있다.

IFC는 최근 서울시와 손잡고 금융사 유치에 나섰다. IFC는 여의도에 사무실을 내려는 국내외 금융사에 사무 공간을 제공한다. 임대료와 관리비는 서울시가 70% 이상 지원해줄기로 했다. 서울시는 여의도 내 여러 오피스 건물과도 접촉했으나 임대료 등을 고려해 IFC가 낙점됐다고 알려졌다.

박종화 기자 pbell@



세종시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사진제공 국토교통부

한양, 국내 최대 수상 태양광발전 수주

중견 건설사 (주)한양이 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소 구축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한양과 서부발전은 지역사 6개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새만금 일대에 국내 최대 규모 수상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하는 사업인 ‘새만금 햇빛나눔사업’을 수행한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일대의 농림부 농생명 용지 1-1공구와

2공구에 73MW(메가와트)급 수상 태양광 발전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발전소 주변 등 지역 주민들과 수익을 나누는 ‘주민참여형’ 발전소다. 지역 기자재를 90% 이상 사용하고 발전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농업생산 기반시설 지원에 쓰는 등 농어촌 상생형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양은 발전소 시공·운영을 맡으며, 스킨트리가 부력체 공급, 신성이엔지니어가 모듈 등

기자재 공급을 맡는다. 총사업비는 약 1300억원(부가세 별도) 규모로, 2022년 준공해 2023년 1월 상업 운전 개시가 목표다.

앞서 한양은 지난 6월 국내 최초로 태양광 정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인 ‘솔라시도 태양광발전소’를 전남 해남 구성지구에 준공한 바 있다.

최근 주택 시공을 넘어 신재생 에너지와 주택 개발 분야로 사업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한양은 연이은 발전사업 수주로 에너지 사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선영 기자 moon@

‘세종 국회분원’ 건립 가능성 인근 단지 집값 고삐 풀렸다

학군·상권 조성 어진·도담동 일대 실거래가 한 달 새 1.5억 올라
세종시 아파트값 올해 24% 폭등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추이 (단위: %)

연도	6월 22일	7월 6일	7월 20일	7월 27일
2020	1.55	2.06	0.97	2.95

출처: 한국감정원

세종시 국회 분원 건립 가능성이 커지면서 세종시의 아파트값은 울돌머리 이미 21% 넘게 폭등했다. 여기다 지난 한 주 동안에만 무려 3%가 더 급등했다. 한국감정원이 세종 아파트값의 매매가격 통계를 낸 이래 이래 최고치다.

입주물량에 따라 부침을 겪었던 이 지역 아파트값은 최근 공급 과잉 이슈가 해소된 동시에 ITX(도시간 특급열차)로 연결하는 철도망 건설 추진 호재까지 더해져 크게 뛰었다. 6·17 대책에서 비규제지역이었던 대전과 청주가 규제지역으로 묶이자 세종으로 투자 수요가 역유입하고 있다는 게 현지 공인중개소들의 설명이다.

여기에 여당이 행정수도 이전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집값 급등세에 기름을 부은 셈이다. 일각에선 이번 행정수도 이전 카드에 일부 지역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면서 세종 지역 간 집값 간극이 극심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여당이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해결 하겠다며 행정수도 이전 패를 꺼냈는데 오히려 이 지역 집값만 과열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며 “저금리 장기화에 유동성은 넘치고 (세종시 주택) 공급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간과해 결국 집값 급등을 자초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금주의 분양캘린더

8월 첫 주엔 1만1800여 가구가 분양 시장에 나온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에서 21개 단지, 1만1835가구(일반분양 7341가구)가 분양한다. 대구 동구 신천동 ‘더샵 디어엘로’와 경기 시흥시 정왕동 ‘시화 MTV 파라곤’, 부산 연

제구 연산동 ‘시정역 삼정그린코아 포레스트’ 등이 청약 받는다. 18개 단지에선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다. 경기 수원시 망포동 ‘영통 아이파크캐슬 3단지’·용인시 영덕동 ‘기흥 푸르지오 포레피스’, 인천 중구 중산동 ‘영종국제도시 동원 로얄듀크’ 등에서 청약 당락이 갈린다.

계약을 하는 단지는 19곳이다. 서울 성북구 길음동 ‘길음역 롯데캐슬 트윈골드’,

경기 고양시 행신동 ‘행신 파밀리에 트라이하이’, 인천 중구 운남동 ‘운서2차 SK뷰(VIEW) 스카이스티’ 등에서 정당계약을 받는다. 다음 주 견본주택을 개관하는 단지는 9곳이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 ‘강동 중흥S클래스 밀레니얼’·중구 입정동 ‘힐스테이트 세운’, 경기 성남시 신흥동 ‘산성역 자이 푸르지오’ 등이 7일 일제히 견본주택을 연다.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8/5 (수)	8/6 (목)	8/7 (금)		
8/3 (월)	접수	경기	고양시	지축동	고양지축S1(영구임대) (~8/7)	8/5 (수)	8/6 (목)	8/7 (금)		
			수원시	망포동	영통아이파크캐슬3단지 2순위					
			양평군	양평읍	양평휴먼빌센트럴힐시티 2순위					
		인천	부평구	삼산동	브라운스톤부평 2순위					
		부산	연제구	연산동	시정역삼정그린코아포레스트 ▲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대리수 ♣					
	8/4 (화)	접수	경기	시흥시	정왕동	시화MTV파라곤 1순위	8/5 (수)	8/6 (목)	8/7 (금)	
				부산	남구	대연동				대연푸르지오클러스터 1순위
				대구	달서구	감삼동				죽전역코아루디리브 1순위
			울산	남구	아음동	울산대현시티프라자 1순위				
			경북	봉화군	춘양면	봉화춘양1(국민임대) (~8/11)				
			경북	봉화군	춘양면	봉화춘양1(영구임대) (~8/11)				
8/5 (수)	발표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평휴먼빌리버파크아반	8/5 (수)	8/6 (목)	8/7 (금)		
			평택시	고덕면	평택고덕제일풍경채2차에듀					
			부산	연제구	연산동				시정역삼정그린코아포레스트 ▲	
		대구	동구	효목동	동대구2차비스타동원					
		경북	문경시	문경읍	문경역코아루디리브 2순위					
		경북	문경시	문경읍	문경역코아루디리브 2순위					
	8/5 (수)	접수	경기	구리시	인창동	구리인창대원칸타빌 1순위(당해지역)	8/5 (수)	8/6 (목)	8/7 (금)	
				시흥시	정왕동	시화MTV파라곤 2순위				
				부산	남구	대연동				대연푸르지오클러스터 2순위
			부산	연제구	연산동	시정역삼정그린코아포레스트 1순위				
			대구	달서구	감삼동	죽전역코아루디리브 2순위				
			대구	동구	신암동	동대구역화성파크드림 ♣				
8/5 (수)	발표	경기	수원시	망포동	영통아이파크캐슬3단지	8/5 (수)	8/6 (목)	8/7 (금)		
			양평군	양평읍	양평휴먼빌센트럴힐시티					
			인천	부평구	삼산동				브라운스톤부평	
		부산	연제구	연산동	시정역삼정그린코아포레스트 1순위					
		대구	달서구	감삼동	죽전역코아루디리브 2순위					
		대구	동구	신암동	동대구역화성파크드림 ♣					
8/5 (수)	접수	경기	구리시	인창동	구리인창대원칸타빌 1순위(당해지역)	8/5 (수)	8/6 (목)	8/7 (금)		
			시흥시	정왕동	시화MTV파라곤 2순위					
			부산	남구	대연동				대연푸르지오클러스터 2순위	
		부산	연제구	연산동	시정역삼정그린코아포레스트 1순위					
		대구	달서구	감삼동	죽전역코아루디리브 2순위					
		대구	동구	신암동	동대구역화성파크드림 ♣					
	8/5 (수)	발표	경기	수원시	망포동	영통아이파크캐슬3단지	8/5 (수)	8/6 (목)	8/7 (금)	
				양평군	양평읍	양평휴먼빌센트럴힐시티				
				인천	부평구	삼산동				브라운스톤부평
			부산	연제구	연산동	시정역삼정그린코아포레스트 1순위				
			대구	달서구	감삼동	죽전역코아루디리브 2순위				
			대구	동구	신암동	동대구역화성파크드림 ♣				

(주1)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주2)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단지는 색으로 표시
(주3) 오픈 단지는 사업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료: 부동산114

인권위 '박원순 사건' 직권조사 시작부터 난항

서울 장애인콜택시 183대 더 늘린다

유족 집행정지 신청 포렌식 중단 피해 호소 목살 관계자 모두 퇴직 조사 기한 없어 장기화 가능성도

경위는 물론 성추행 의혹에 관한 단서가 있을 것으로 추정돼 이번 사건의 '스모킹 건'으로 꼽혔다.

하지만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30일 포렌식 절차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박 전 시장의 유족 측은 24일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와 포렌식 절차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이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중단됐다. 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가 닫힌 셈이다.

포렌식 수사가 중단되면서 사건의 사망 경위를 파악도 어려워졌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 현장에서 발견된 유류품인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유족의 동의를 받아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법원의 포렌식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박 전 시장을 고소한 피해자와 여성단체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피해자 고소대리인 김재련 변호사와 지원단체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은 입장문을 내고 "해당 폰은 서울시 명의의 폰이며 기밀값 및 이용요금을 9년간 서울시에서 납부했다"고 말했다.

◇인권위, 피해자 호소 '목살'한 비서진 입 열 수 있을까=인권위가 직권조사하기로 했지만 기초적인 사실관계 파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비서실 소속이던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린 사람으로 지목한 비서실 관계자들은 모두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사건 당사자에게 출석이나 진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사안에 따라 현장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진다. 그러나 당사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긴급 체포나 압수수색 등 물리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3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진술서 제출을 거부하거

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조사를 꺼려도 1000만 원 벌금형에 그친다. 인권위의 권한만으로는 관련자들의 입을 여는데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기간 없는' 직권조사 공언한 인권위...서울시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인권위는 이번 사건에서 '기간을 정해 놓지 않고'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와 서울시의 피해 목인·방조뿐 아니라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이 때문에 조사 기간이 1년이 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시는 인권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방조·목인, 피소 사실 유출 등과 관련한 경찰과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인석 기자 mystic@
김소희 기자 ksh@

대기시간 55분→30분 단축

서울시는 장애인콜택시 이용자의 불편을 감소시키기 위해 기존 운행하던 437대의 장애인콜택시를 183대 추가 도입해 620대로 증차한다. 이에 이용자의 가장 큰 불편으로 꼽혀왔던 긴 대기시간이 평균 55분에서 30분으로 단축된다.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콜택시 차량 증차를 완료하고 8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또 장애인콜택시 이용자 신규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이용자 편의성을 대폭 개선한다.

장애인콜택시는 시중에 있는 승합차에 리프트, 슬로프 같은 장애인 맞춤형 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는 차량으로, 특장차량이라고도 부르는 특별교통수단이다.

주요 추진내용은 △장애인콜택시 증차 및 운행인력 증원 △이용자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차량운행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 편의성 증진 △운송수단 확대, 지원확대, 운행지역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이다.

서울시는 장애인콜택시 이용자의 불편을 감소시키기 위해 기존 운행하던 437대의 장애인콜택시를 183대 추가 도입해 620대로 증차한다. 또 정규직 운전원 200명을 신규 채용하는 등 운행인력을 총 720명까지 확보(차량 대비 120%)해 운영한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법정대수 증가(장애인 200명당 1대→150명당 1대)에도 불구하고, 올해 장애인콜택시 차량 확충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정한 법정대수를 106.9% 초과 달성했다.

증차와 증원을 통해 이용자의 가장 큰 불편으로 꼽혀왔던 긴 대기시간이 평균 55분에서 30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연간 승승 가능 인원도 연간 118만 명에서 168만 명으로 대폭 증가한다.

서울시는 장애인콜택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이용 전, 이용 중, 이용 후 등 모두 고려한 편의성 증진 방안을 마련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탕정 태양광 가동중단 삼성디스플레이 배상 책임”

대법 “화재 후 설비 복구 소홀”

탕정 태양광설비 화재 이후 가동이 중단된 것에 대해 삼성디스플레이의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한국남동발전이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남동발전은 삼성과 삼성전자 탕정 공장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운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운영개시 3년이 조금 지난 시점인 2014년 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해 분전반, 전력케이블, 접지선 등이 파손됐다.

남동발전은 삼성물산과 삼성디스플레이가 협약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51억 3840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삼성물산은 협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해 하자가 있는 설비를 설계·시공했다”며 “나아가 하자보증 기간 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사고일로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설비를 복구하지 않고 있다”고 삼성물산의 책임을 인정했다.

반면 2심은 삼성디스플레이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고 삼성물산이 1억3866만원, 삼성디스플레이가 19억18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디스플레이는 협약의 해지와 설비 철거를 주장하면서 보수, 재가동에 협조하지 않는 등 협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1심과 달리 전력판매수익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용 보전액 상당의 손해를 추가로 인정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오후 5시에 제공하는 5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 에 게재됐습니다



텅 빈 서울 본격적 여름휴가철인 2일 서울 세종대로 일대가 한산한 모습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기업성과에 날개를 다는 효과적 영업

관계지향적 영업

영업성공을 위한 고(高)성과 노하우 터득하기

“영업직에 막 입문하는 사람들과 현직에 있는 영업사원, 더 나은 실적을 고민하고 계시는 기업의 영업 관리자 분, 그리고 영업 연구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을 위한 도서”

저자약력



박정은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
이화여대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
한국마케팅학회 부회장
한국마케팅관리학회 부회장
한국유통학회 부회장



박민순
한국세일즈연구원 원장
(주)이음헬스케어 대표이사
진 김정문알로에 대표

신A5판 / 280P
정가 14,000원

www.pybook.co.kr **박영사**

박영사
신간도서

“농식품도 돈 벌 수 있다는 인식 키워 청년 창업 활성화”

초대석 민연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원장

“농식품 분야 창업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해야 산업에 청년이 유입되고 창업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유니콘, 예비 유니콘이 지속적으로 육성될 수 있습니다.”

민연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은 2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농업에 대한 투자 인식을 바꾸기 위한 우수한 펀드, 출자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각종 정책을 다뤘던 그는 올해 2월 제 6대 농금원장으로 취임했다.

농금원은 농림수산물수산물정책자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2004년 출범하고, 정책자금 융자금 관리업무를 시작했다. 2010년에는 농식품모태펀드 투자관리

을 맡은 현재가 매우 중요한 전환기고, 농수산물산업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농식품펀드 투자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1차 농산업 분야에서도 예비 유니콘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농업 분야가 여전히 정부 지원금(보조금)과 융자에 익숙한 산업이다 보니 투자 시장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것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다. 이 같은 인식 때문에 영세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 청년 유입이나 창업이 쉽지 않은 분야로 손꼽힌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농금원은 농



올해 2월 취임한 민연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은 농업에 대한 투자 인식을 변화시켜 농식품 산업에서도 유니콘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특히 청년들의 창업이 중요한 열쇠라고 강조했다.

10년 맞은 농식품펀드 1조1700억 조성 430개 기업에 투자 하반기 ‘투자지원센터’ 설립 추진... 청년 유니콘 기업 육성 정책보험 상품 발굴·재해보험 개선... 농업인 혜택 늘릴 것

전문기관으로 선정됐고, 2015년에는 농업 재해보험사업 관리업무를 수탁하면서 농업 분야의 가장 굵직한 정책자금 운용 업무를 하고 있다.

이 외에도 농림수산물정책자금 대출금이 정책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또는 집행과 회수는 제대로 이뤄지는지와 함께 농·수·산 립조합과 일부 시중은행의 정책자금 대출금 관리실태도 검사한다.

올해로 운용 10년을 맞이하는 농식품모태펀드 조성액은 6월 말 기준 1조1730억 원으로 430개 기업에 8431억 원을 투자 완료했다. 현재 운영 중인 8개 펀드는 단순 수익률만 52%를 넘어섰다. 2016년 조성된 스마트팜펀드를 통해서도 엔생, 그린랩스에 대한 투자가 이뤄졌고, 이들 기업이 대표 스마트팜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일조를 했다.

민 원장은 “농식품모태펀드 운용 10년

업체와 투자자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청년들에 대한 투자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먼저 올해 하반기 가장 ‘투자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농업 경영체에는 투자자들이 원하는 체질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투자자들은 농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해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목표다.

이 투자지원센터에는 청년들을 위한 ‘영파머스지원단’도 따로 꾸려 청년들의 창업도 이끌어낸다. 민 원장은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농업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1차 농업 분야에 대한 투자기회를 제공해 상대적으로 창업 생태계에서 소외된 농식품 업체를 지원하겠다”며 “결국 농식품 분야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유니콘, 예비 유니콘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농금원의 또 다른 큰 축인 농업정책보험도 농업인 사이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농업정책보험은 농작물과 가축의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하는 농업재해보험과 농작업 중 재해를 입은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돕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이다.

보험가입에 필요한 비용(보험료)의 50%를 중앙정부가, 약 30%는 지자체, 나머지 20% 정도 농업인이 부담하는 구조다.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은 사과·배·벼 등 67개 작물이 대상이고, 가축재해보험은 소·돼지·닭 등 16개 축종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업인과 농작업 근로자를, 농기계종합보험은 경운기·콤바인 등 12종의 농기계를 보장하고 있다.

민 원장은 “농금원은 사업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보

험상품과 제도의 개선, 신규 보험품목 발굴과 신상품 연구, 보험사업 점검과 보험 통계의 생산·관리 업무를 통해 농업인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농업인들의 보험 가입이 늘어나면서 재해보험도 더욱 체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보험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보험인수와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 업무를 올해 신설하고, 기본적인 재해를 보장하는 상품과 그 이상의 피해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분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민 원장은 “손해평가기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하고, 보험·농업생산·가격·기상·재해피해 등의 데이터를 지리정보(GIS)로 구현한 빅데이터 통계자료도 만들어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은 앞으로 농업 분야가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민 원장은 평가했다. 그는 “2·3차 산업은 코로나19로 수입이 어려워지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오히려 농식품 수출과 내수 시장은 활발해졌다”며 “지금은 새로운 기술력과 융복합, 농촌 관광, 생태·문화적 가치 증가 등 농업의 산업화를 위한 기회 요인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혁신을 통한 외부인재, 민간 자본 등을 유치하면 기술·지식·지분 기반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민 원장은 “농금원은 지난 5년 연속 경영평가에서 A를 받았고, 그만큼 ‘실속있는’ 기관으로 평가받는다”며 “정책금융 관리기관으로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수 인력을 확보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 것이 성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실제 농금원의 정책자금 검사업무는 은행권에서 대출금 감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직원 위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정책보험은 보험회계사·손해사정사 등 보험업계 우수인력으로, 투자관리업무는 회계사, 창업투자사 경력직원 등으로 조직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취임 6개월을 맞아 이제 첫발을 내디뎠다는 민 원장 ‘작지만 강한 조직’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분야별로 관련 사업과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재설계하는 등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새로운 사업 설계와 농식품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외부와의 소통 강화도 필요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최근에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농식품기업의 투자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맞춤형 투자유치에 나서기도 했다.

민 원장은 “농금원을 100년 이상 지속가능한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목표”라며 “조직의 부족한 점은 개선해 나가고, 농업인을 비롯한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사업과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1973@

BRAVO My Life

Home Trip

재미 공감 위로

브라보, 함께해요! 삶이 달라집니다!

정기구독 안내 | 1년 정기구독료 10만 원(우편발송료 무료), 날권은 1만 원
 정기구독 신청 및 구독 문의 | TEL (02) 799-2680 FAX (02) 799-6700
 이메일 bokyeong@etoday.co.kr 홈페이지 구독신청 bravo.etoday.co.kr

브라보 챔잼 TV
 시니어만을 위한 소통공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준비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들을 유튜브 채널 브라보 챔잼 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유튜브 검색창에 브라보 챔잼 TV)

구독 문의 (02) 799-2680

“포스트 코로나 핵심은 ‘규제 개혁’... 中企 위한 제도 필요”

W 기획 인터뷰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규제혁신연구실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신산업 활성화와 제조업 정상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모두 풀 수 있는 ‘키(열쇠)’는 규제 혁신입니다.”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규제혁신연구실장은 이투데이와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시대의 정책 방안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 경기가 침체기를 겪고 있다. 아직 코로나19가 잠잠해지지는 않았지만, 이제 관건은 ‘포스트 코로나(코로나19 이후)’다. 전염병 확산으로 전 세계에서 정치·경제·사회적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지금, 생존을 넘어 그 이후의 변화를 어떻게 따라갈 것인지가 화두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중소기업 정책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최수정 실장은 지금 상황을 “코로나19는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까지 사회 전체가 멈추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처럼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그는 머지않아 변화한 시대가 도래할 것을 예상한다. 최 실장은 “코로나19 이후 사회와 경제 전반에 걸쳐 변화가 발생할 것은 명확하다”며 “언택트(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진단키트나 치료제·백신 등 바이오헬스 시장 확대뿐만 아니라 위험 대응의 일상화, 자국 중심주의 강화 등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이전에도 서비스 중 이던 ‘줌(Zoom)’이 화상회의를 선도하는 서비스가 되지 않았나”며 “앞으로 다양한 기회가 열린 만큼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하는 기업이 살아남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재무나 조직 등 사업

코로나 前과 다른 큰 변화 예고
인력·자금 부족한 중소기업
생존 위해선 정책 지원 필수

정부·국회, 규제 개혁 신속 처리
사법부도 불공정 거래 제재를



적 위기를 관리하는 한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는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바쁜 중소기업의 경우 전방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특히 “코로나19의 대유행이 도래하는 등 위험에 대응하는 것을 일상화해야 한다”며 “재무적으로 악화된 부분을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비즈니스에 대한 체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최 실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이나 자금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런 경우에는 빠르게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애로사항은 정부 정책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스트 코로나의 핵심이 ‘규제 개혁’에 있다고 보는 이유다. 최 실장에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정책적 대안이 어떤 방향을 향해야겠느냐고 묻자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이 비대면 등 신산업 성장을 확충하는 것과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조기 정상화를 통한 위기 극복이란 두 가지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를 풀기 위한 중요한 열쇠는 규제혁신에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비대면 사업이 대표적이다. 최 실장은



최수정 실장은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만 규제 개선에 나설 경우 한계가 많았다”며 “국회와의 협력적 규제개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이관 기자 photoeran@

“비대면 진료와 같이 오랜 기간 담보상태인 비대면 서비스 규제는 포스트 코로나 관점에서 전향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한 “정부도 산업별 지원책의 실효성을 고려해 선택과 집중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산업 스펙트럼이 다양하고 회사별로 규모도 다양하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사법부 모두 나서야 한다. 조연도 제시했다. 최 실장은 21대 국회가 혁신적인 규제 개혁 법안을 하루 빨리 마련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란 생각에서다.

최 실장은 “실제 중소기업연구원 조사 결과,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부가 추진했던 신산업·중소기업 규제혁신 과제의 약 30%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되는 등 한계가 있었다”며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플랫폼 공정거래 법안 등 지난 20대 국회에서 추진됐던 규제혁신 법안들도 보완해 신속하게 재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의 협력도 주문했다. 그는 “실제 정책 마련 현장에서는 정부만 규제 개선에 나설 경우 한계가 있는 경

우가 많았다”며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 역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회와의 ‘협력적 규제개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법부에는 중소기업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 활용을 당부했다. 대표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다. 지난 2011년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률에 처음 도입돼 이후 총 16개 법률에서 시행 중이지만 자주 활용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청구는 전체 9건에 그친다. 특히 이 중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은 1건에 불과했다.

그는 “행정부에서 제도를 마련하더라도 사인간의 분쟁은 사법부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법원이 규제에 대한 최종적 판단을 하는 만큼, 제도 활용 측면에서 사법부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흐름에 따라 중소기업연구원도 변화에 나섰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지난 7월 1일 조직을 개편하고 포스트 코로나 대응 등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연구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최 실장은 조직개편 이후 신설된 제도혁신연구실을 이끌고 있다. 그는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정책 연구를 시작한 ‘정책·규제 동’이다. 최근에도 중소기업 규제 혁신뿐만 아니라 차등적결권 제도, 중소기업 구조조정 문제 등 다양한 법과 정책을 아우르며 연구하는 중이다.

앞으로 어떤 연구를 해나갈 생각이나는 질문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구조 재편”이라며 “이에 대응하는 중소기업의 역량에 대해 많이들 걱정하신다”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어 최 실장은 “연구원 설립 이후 최초로 법과 규제를 연구하는 별도의 연구실이 생겼다”며 “이곳에서는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및 포스트 코로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과 제도 연구, 공정경제 연구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대원 기자 leedw@

아빠가 그랬어...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지~

아빠가 만든 유산균 건강기능식품

다먹고 다이어트

굵으면서 하는 다이어트는 이제 그만 다먹고다이어트와 함께 건강한 다이어트 시작!
 가르시니아카모보지아추출물 1,200mg 함유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는 분을 위해 설계!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여 체지방 감소에 도움
건강한 한국여성의 집에서 찾은 특허유산균
 이너밸런스, 장까지 더 건강하게! 7종 유산균이 이로운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원활한 배변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장 끝까지 살아가는 식물성 친환경 SP코팅
 담수산, 위산에도 곳곳이 특허 받은 코팅 기술로 장내 생존율이 매우 우수하여 유산균을 끝까지 확실하게 전달
5가지 無첨가
 착색료, 합성향료, 감미료, 스테아린산나트륨, 이산화규소 무첨가
영국산 비타민C 30mg
 식이조절과 다이어트로 균형잡힌 식사가 어려울 때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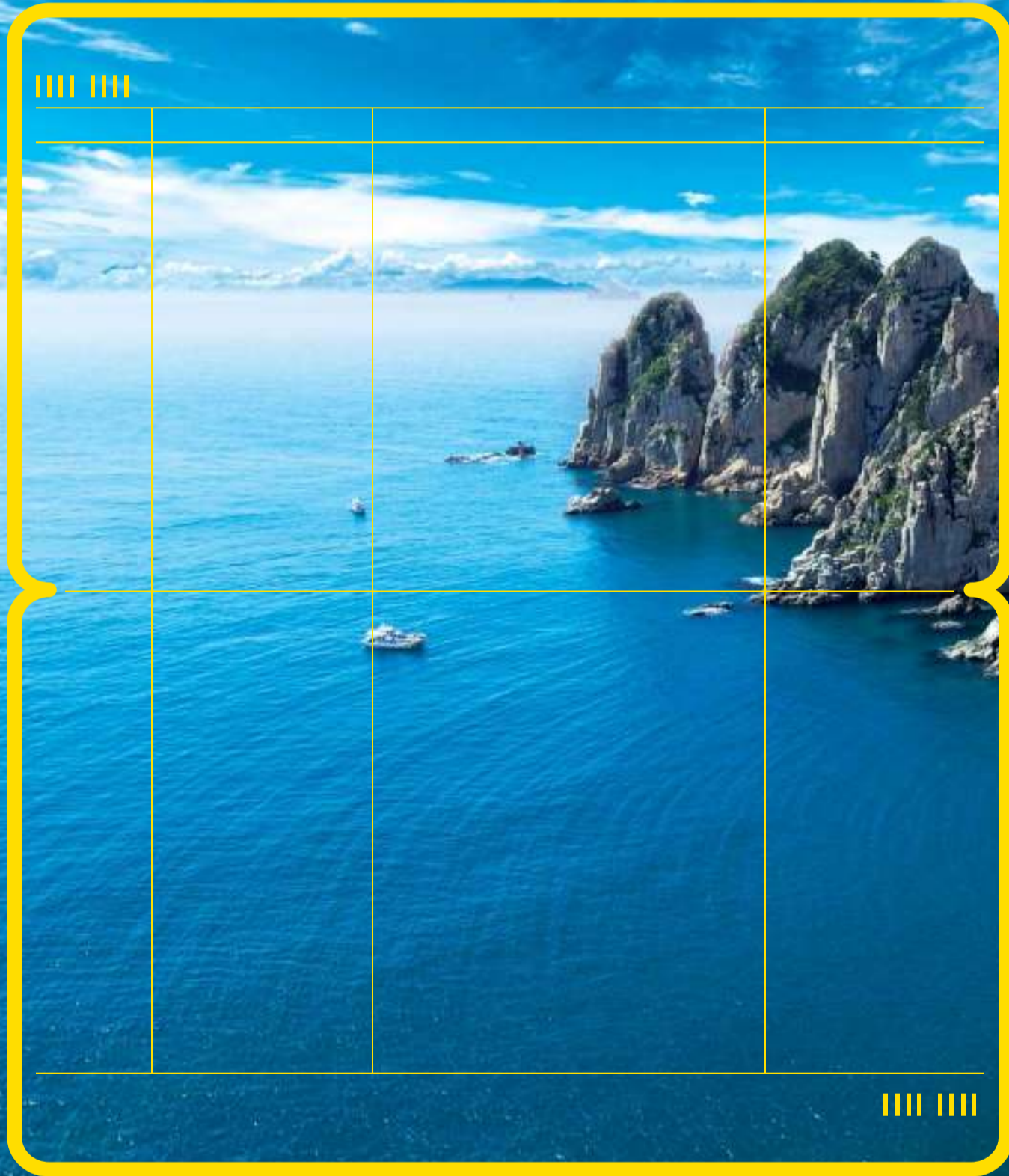
가격까지 짹~짹~ 빠드리는 아람비스토어
 2개월치 구입하면 1개월치가 공짜! 그리고 추가할인까지!
2개월치+1개월치 = 165,000원 = 99,000원
 500세트 한정으로 조기 품절될 수 있으니 서두르세요~

심의회번호: 200411145

제조원: (주)메디오젠 · 판매원: (주)소하소

KB맑은바다패키지와 함께하는 海 맑은 변화

KB국민은행은 더 푸른 바다, 더 맑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통영 소매물도

KB맑은바다적금

- * 신규가입 1좌당 **은행이 5,000원씩 매칭기부**
- * 맑은바다를 위한 활동에 동참 시 우대이율 제공(최고 연0.8%p)

KB맑은바다공익신탁

- * 특정금전신탁을 가입한 고객이 신탁보수(선취)의 10%를 기부하는 공익적 금융 상품
- * 연말 정산 시 **기부금 세액 공제 가능**

[KB맑은바다적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점 직원 또는 스마트상담부(1588-9999)로 문의하세요. [KB맑은바다공익신탁] *상품 가입 전 반드시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세요.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금융상품(신탁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 금융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은 특정금전신탁 가입 시 발생하는 선취보수(1%)의 10%를 환출받아 기부하는 상품입니다. *기부 목표금액 1억원 달성 시 판매가 종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점 직원 또는 스마트상담부(1588-9999)로 문의하세요.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0-1229호(2020.06.26), 광고물 유효기한 2020.12.31까지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0-03084호(2020.7.2~2020.12.31)

“예쁜 과일이 좋은 과일? 겉만 보면 안되지요”

‘설국향’ 발굴한 심석보 에스피프레시 상품소싱팀장

제주도·관할 농협 손잡고 사장 위기 상품종 판로 확보 “외형 중심의 선별 생산·유통, 소비자 선택권 가로막아”

천혜향·레드향만큼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설국향은 한때 판로를 찾지 못해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 상품종 과일은 시장 진입장벽이 높아 판로확보에 실패할 경우 소리없이 사라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판로를 확보하지 못한 설국향 역시 제주 농민들과 제주시 관계자들의 아픈 손가락이었다. 이런 설국향을 우리 식탁에 오르게 한 인물이 있다. 에스피프레시(SPFresh) 심석보 상품소싱팀장이 주인공이다.

“설국향은 당도가 높고 식감도 좋은 훌륭한 과일이었지만 ‘익숙하지 않은 과일’이라 시장 안착이 쉽지 않았죠. 제주도 정부부지사, 관할 농협 관계자 등과 지속적인 논의 끝에 설국향의 전량 수매를 결정했습니다.”

심 팀장이 속한 상품소싱팀은 이름처럼 상품의 매입을 결정하고 유통전략을 수립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다.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기존 품종을 업그레이드한 상품을 찾아내는 것이 그의 일이다.

에스피프레시는 올해 3월 제주시 농협, 중문농협 유통사업단과 상품종 고당도 만감류 ‘설국향’의 독점 판매 협약을 체결했

다. 그의 상품 기획 전략을 발판 삼아 시장에 성공적으로 론칭한 설국향은 이제 레드향, 천혜향과 더불어 제주를 대표하는 단감류로 등극했다.

심 팀장은 10여 년간의 공영도매시장 과일 경매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에스피프레시 상품소싱팀에서 산지 발굴, 상품 유치 등 업무를 맡고 있다. 그는 나름의 상품 선택 기준이 확고하다.

“좋은 과일요? 외형만 뛰어난 과일이 무조건 맛있는 건 편견입니다. 소비자가 ‘언제 먹어도 맛있는 과일’을 외형에 치우치지 않고 본연의 풍미와 특성이 살아있는 제품을 골라냈을 때 가장 뿌듯합니다.”

에스피프레시는 ‘프루트 헌터(Fruit Hunter)’를 통해 국내외 산지를 찾아다니며 최상의 맛, 최고 품질의 과일을 선별한다. 선별된 과일은 자체 평가단인 ‘프루트 드 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최고급 프리미엄 과일 브랜드 ‘폴앤박(PAUL&PARK)’의 브랜드명을 부여받는다. 폴앤박의 최상급 과일은 현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마켓컬리, CU편의점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판매 중이다.

그는 특히 이미 유통시장이 형성된 품종



심석보 에스피프레시 상품소싱팀장은 한때 판로를 찾지 못해 사장 위기에 처했던 설국향을 발굴해 레드향, 천혜향과 함께 제주를 대표하는 단감류로 등극시켰다. 사진제공 에스피프레시

가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에스피프레시는 ‘프루트 헌터(Fruit Hunter)’를 통해 국내외 산지를 찾아다니며 최상의 맛, 최고 품질의 과일을 선별한다. 선별된 과일은 자체 평가단인 ‘프루트 드 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최고급 프리미엄 과일 브랜드 ‘폴앤박(PAUL&PARK)’의 브랜드명을 부여받는다. 폴앤박의 최상급 과일은 현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마켓컬리, CU편의점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판매 중이다.

그는 특히 이미 유통시장이 형성된 품종

보다는 소비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상품종 과일을 발굴해 상품화하고, 지속적인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지 확보 및 농가 교류 업무에 주력하고 있다. 심 팀장은 “과일 중에서도 평균 이상의 당도와 품질, 식감이 담긴 최상급 과일을 지속적으로 유통해 소비자로부터 인정받는 브랜드이자 신제품의 목표”라며 “이러한 가치를 ‘폴앤박’ 브랜드에 담아 소비자들에게 ‘언제 먹어도 맛있는 과일’을 선보이겠다”고 다짐한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이석구 前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신세계인터 자주부문 대표 선임

신세계인터내셔널은 ‘자주(JAJU)’ 사업부문 대표이사 사장으로 이석구(사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선임했다.



이 선임 대표는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후 삼성물산에 입사해 신세계백화점·이마트를 거쳐 조선포탈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2007년 12월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맡아 모바일 주문 시스템인 ‘사이렌 오더’를 전 세계 스타벅스 매장 중 처음 도입하는 등 스타벅스코리아의 고속 성장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남주현 기자 jooh@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에 조주현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51)이 임명됐다.



신임 조주현 실장은 대전 출신으로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8회로 1995년 공직에 입문해 25년간 중기부(중기청 포함)에서만 근무해 온 소상공인과 R&D 분야 전문가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기술인재정책관,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을 역임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미디어 재벌 머독 차남, 뉴스코프 떠났다

아버지·형과 편집방향 갈등...美 대선 바이든 지지

미디어 재벌인 루퍼트 머독(사진 왼쪽)의 차남이 편집 방향에 대한 의견 불일치를 이유로 가족회사 ‘뉴스코퍼레이션(뉴스코프)’을 떠났다.

1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제임스 머독(오른쪽)은 전날 이사회에 보낸 서한에서 “뉴스코프 이사회를 사임한다”면서 “뉴스코프 소속 매체가 발행한 특정 콘텐츠와 그 밖의 다른 전략적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사임 배경을 설명했다.

마지막 남아 있던 이사회마저 내려놓음으로써 제임스 머독은 가족 경영에서 손을 떼게 됐다. 그는 지난해 21세기폭스의 콘텐츠 사업이 미국 월트디즈니에 매각되자 CEO직을 떠났고 뉴스코프의 이사회만을 유지해왔다.

제임스 머독은 그의 가족들과 정치적 성향이 달라 마찰을 빚어왔다. 이에 뉴스코프 회장인 아버지 루퍼트 머독과 폭스코퍼레이션 최고경영자(CEO)를 맡은 형 라클란 머독과 뉴스 보도 방향을 두고 자주 충돌했다.

제임스 머독은 지난 1월 호주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뉴스코프 소속 매체들이 호주 산불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왜곡 보도했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뉴스코프 소유의 월스트리트저널이 기후변화 문제를 충분히 다루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 형 라클란이 경영을 책임진 폭스뉴스를 겨냥해 보도 방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수 차례 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공식 지지



한 루퍼트 머독과 달리 제임스 머독은 트럼프 대통령의 라이벌인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의 선거운동에 수십만 달러를 기부했다. 또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피트 부티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에 정치 자금을 대기도 했다.

루퍼트 머독과 라클란 머독은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는 수년간 제임스의 노고에 감사해 하고 있으며, 그가 미래에 더욱 잘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제임스 머독의 사임으로 뉴스코프 이사는 11명에서 10명으로 줄었다. 김서영 기자 0jung2@

한미약품 창업주 임성기 회장 별세

‘계약강국’ 꿈...48년간 회사 이끌어

임성기 한미약품그룹 회장이 2일 새벽 숙환으로 타계했다. 향년 80세.

1940년 경기도 김포에서 태어난 임 회장은 1965년 중앙대 약대를 졸업했다. 이후 1967년 서울 동대문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연 ‘임성기 약국’을 시작으로 1973년 한미약품을 창업했다.

임 회장은 ‘한국형 연구·개발(R&D) 전략을 통한 제약강국 건설’이란 꿈을 품고 48년간 한미약품을 이끌었다. 일찌감치 R&D에서 회사의 미래를 읽은 그는 개량신약과 퍼스트 제네릭 개발에 집중하며 신약 개발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이 같은 전략으로 한미약품은 2009년 국내 제약업계에서 처음으로 개량신약 개발에 성공했다. 2009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고혈압 복합치료제 ‘아모잘탄’



은 ‘아모잘탄 패밀리’로 확장, 연 매출 1000억 원이 넘는 초대형 품목으로 성장했다.

개량신약으로 쌓은 기술력은 글로벌 혁신신약 개발로 이어졌다. 한미약품은 2011년 미국 아테넥스에 독자적 플랫폼 기술 ‘오라스크 버리’를 기술수출, 아테넥스는 이를 적용한 경구용 항암신약 ‘오라솔’의 미국 식품의약품(FDA) 허가를 준비하고 있다.

유족으로는 부인 송영숙 씨와 아들 임종운(한미사이언스 대표)·임종훈(한미헬스케어 대표) 씨, 딸 임주현 씨(한미약품 부사장)가 있다. 장례는 고인과 유족들의 뜻에 따라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른다. 발인은 오는 6일 오전이다. 유족 측은 조문과 조화는 정중히 사양한다는 뜻을 밝혔다.

유혜은 기자 euna@

인사

- ◆감사원 ◇과장 신규 보임 △민원조사단 수원사무소장 이삼만 △기획조정실 국제업무조사담당관 유영 △심의실 감사품질지원관 박정철 ◇과장 전보 △재정·경제감사국 제1과장 임동혁 △재정·경제감사국 제4과장 남가영 △산업·금융감사국 제1과장 전영진 △산업·금융감사국 제2과장 박기우 △산업·금융감사국 제3과장 정영채 △산업·금융감사국 제4과장 위응복 △국토·해양감사국 제2과장 노희관 △시설안전감사단 제2과장 조석훈 △지방행정감사2국 광주사무소장 박득서 △심의실 법무담당관 임승주 △심의실 심의지원담당관 김원형 △적극행정지원단 재심의담당관 배재일
- ◆교육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승진 △군산대학교 사무국장 최성부 ◇부이사관 지원 근무해제 △홍보담당관 임용빈 ◇서기관 파견 복귀 △고등교육정책실 하진혜
- ◆국토교통부 ◇국장급 승진 △도시정책관 최임락 ◇과장급 전보 △건설산업과장 김광림
- ◆중소벤처기업부 ◇국장급 선임 △감사관 박준홍 ◇국장급 전보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 김일호
-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경쟁심판담당관 신동열 △가맹거래과장 황원철 △대

- 통령비서실 진출 이승규
- ◆방송통신위원회 ◇국장급 전보 △방송기반과장 배중섭
- ◆특허청 ◇과장급 전보 △서비스상표심사과장 정경훈 △주거기반심사과장 김용재 △특허심판원 심판장 양재석 김준경 곡선미
- ◆농촌진흥청 ◇고위공무원 승진 △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전성부장 서효원 ◇과장급 승진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 에너지환경과학과장 이상규 ◇과장급 전보 △대변인 성제훈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 스마트팜개발과장 강금춘
- ◆산림청 ◇과(팀)장급 전보 △임업통상팀장 차준희 △수목원조성사업단장 김동대 △산림항공본부 산림항공과장 이대용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지원과장 정종근
- ◆새만금개발청 ◇과장급 전보 △혁신행정담당관 김준성 △신산업전략과장 김민수
- ◆문화재청 ◇국장급 전보 △문화재활용국장 이경훈 ◇과장급 임용 △문화재활용국 세계유산팀장 여성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장 이상협 ◇과장급 전보 △대변인 이재원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정성조 △국립무형유산원 조사연구기록과장 송민선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진흥과장 양진조 △국립문화재연구소 자연문화재연구실장 송준호 △

- 코로나19 미래대응반장 조주성
- ◆예금보험공사 ◇1급 승진 △IT전략운영부장 이형표 △저축은행관리부장 박현숙 ◇2급 승진 △인사지원부 팀장 우정수 △혁신경영실 팀장 박용식
- ◆한국산업인력공단 ◇임용 △기획운영이사 하대만
- ◆한국원자력연구원 △기획부장 김진필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승진 △연구위원 강준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장 발령 △보건정책연구실장 윤강재 ◇센터장 발령 △보건의료연구센터장 배재용
- ◆서민금융진흥원 ◇신규선임 △자활본부장 마화용
- ◆한국국제교류재단(KF) △미래기획실장 합승훈 △한중양자협력포럼사무국 사무처장 박상배 △경영협력실장 최재진 △모스크바사무소장 임철우 △전략기획부장 김지은 △베를린 사무소장 방경민 △LA사무소장 이종민 △베이징사무소장 서예지
-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김경태
- ◆중앙그룹 ◇JTBC스튜디오 △디지털콘텐츠사업본부장 하영진 △스튜디오물류물라사업본부장 방지현 △콘텐츠사업1팀장 방진호 △투자팀장 이태호 △경영기획팀장 오창훈

부음

영화 ‘페임·에비타’ 앨런 파커 감독 영화 ‘미드나이트 익스프레스’, ‘페임’, ‘에비타’ 등을 연출한 영국의 영화감독 앨런 파커가 31일(현지시간) 별세했다고 BBC 방송, AFP 통신이 보도했다. 향년 76세.

1944년 런던에서 태어난 파커 감독은 광고 업계 카피라이터로 경력을 시작했다. 이후 광고 연출 등을 거쳐 1974년 TV 영화 ‘피난민들’ (The Evacuees)로 영국 아카데미 감독상을 수상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1978년 ‘미드나이트 익스프레스’로 아카데미상 2개 부문을 수상했으나 감독상 수상에는 실패했다.

스타를 꿈꾸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그린 ‘페임’과 ‘에비타’, ‘핑크 플로이드의 백’ 등 음악영화를 만들었고, 1964년 백인

우월주의 단체인 큐클릭스클랜(KKK)이 흑인 인권운동가 3명을 구타·살해하고 암매장한 사건을 다룬 ‘미시시피 버닝’을 연출하기도 했다.

- ◆김종록 씨 별세, 구자민(중근당 경영관리본부 경영기획 담당 상무) 씨 장인상 = 1일, 고양양지병원 장례식장 9호, 발인 3일 오전 10시 30분, 031-810-5444
- ◆조영숙 씨 별세, 강남선 씨 부인상, 강준완(한국경제신문 인천취재부장)·윤화·문호(태양금융품질경영팀장) 씨 모친상 = 1일, 인화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3일 오전 10시 30분, 032-890-3192
- ◆이백자 씨 별세, 이현승(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씨 모친상 = 1일, 부산 시민장례식장 MVG실, 발인 4일 오전 7시, 051-636-4444
- ◆심우상 씨 별세, 나용길(세종충남대병원 원장) 씨 모친상 = 1일, 대전 충남대병원 장례식장 지하 2층 VIP실, 발인 4일 오전 7시 30분, 042-280-8181
- ◆정성봉(전 청주대 총장) 씨 별세 = 1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호, 발인 5일 오전 7시, 02-3410-3151

위정현의 게임으로 보는 세상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한국게임학회 회장

코로나 사태가 요구하는 IT기업 조직혁신

준비되지 않은, 그리고 예상치 않은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재택근무와 유연근무가 연장되면서 한국의 IT기업에도 고민이 생기고 있다.

한국 사회는 지난 몇 년간 4차 산업혁명의 도입을 둘러싸고 많은 난관에 직면해 왔다. 인공지능(AI)이나 원격의료, 공유차량 같은 새로운 혁신은 총론적인 찬성에도 불구하고 각론에 들어가면 여러 이익집단의 반대에 막혀 진전되지 못했다.

코로나로 인해 대면접촉이 제한되면서 모든 기업들은 대면근무를 최소화하고 재택근무나 비대면근무로 전환하고 있다. 미국만 해도 실리콘밸리의 정보기술(IT)기업들은 올해 연말까지 대부분의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IT기업의 근무

방식 변화는 생산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코로나 초기 기업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재택근무를 도입했다. 재택근무는 대면근무에 익숙한 화이트칼라에게 환영을 받았다.

코로나 이전에 한국 기업들은 막연하게 재택근무에 부정적이었다. 재택근무는 비효율적이거나 노동과정에 대한 통제가 곤란하다는 등의 선입관 때문이었다. 그러나 사태 이전부터 선제적으로 재택근무를 추진한 글로벌 기업 중 하나가 일본 도요타 자동차이다.

로 한국 기업은 강제로 코로나 사태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버렸다.

준비되지 않은, 그리고 예상치 않은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재택근무와 유연근무가 연장되면서 한국의 IT기업에도 고민이 생기고 있다. 기업 측면에서 과제는 생산성과 업무효율성이다.

화이트칼라를 블루칼라 방식으로 통제해 생산성 향상과 혁신이 가능했다면 우리보다 자본주의의 역사가 긴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미 화이트칼라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테일러리즘', '포디즘'이 나왔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조짐은 없다.

해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양적인 노동이 아니라 '노동의 질적 전환'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다.

개발자의 입장에서도 문제는 발생하고 있다. 일과 휴식의 구별이 안 되는 문제가 그것이다. 재택근무를 통해서 일과 휴식의 구별이 모호해지면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폐해가 발생한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인류에게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었다. 환경과 인간의 공존이라는 중요한 화두이다. 그와 동시에 코로나는 기업에게도 새로운 조직방식, 작업방식으로서의 전환이라는 과제를 던져주었다.



이종수의 따뜻한 금융

IFK임팩트금융 대표

사람을 키우는 게 먼저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이 담겨있는 슬로건이다. 국정운영과 사회시스템에 사람을 우선하는 정책을 펴겠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법을 제정하는 목적은 사람들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런데 사람이 우선이어야 할 자리에 제도를 위한 제도, 법을 위한 법이 자리를 잡는 경우가 많다.

사람이 먼저인 법과 제도를 잘 정비했을 지라도 이를 운영하는 사람이 문제이다.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또 사람이 중요하다. 법과 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사회적인 목적에 충실하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적용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우리는 과거 어느 때와도 비교가 안 되게 빨리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물질적 풍요 속에서 인간에 대한 배려가 약해지고, 고도의 발전 속에서 소외되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 경제 사회적 격차와 갈등의 골이 어디까지 진행될지 예측조차 불가능하다.

를 만드는 '사회투자' 방식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전통적인 복지에 매몰되어 있는 듯하다. 아직도 쏟아붓는 복지정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문제를 지속 가능하게 풀어나가는 사회투자방식의 접근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법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일들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사회문제와 사회적 가치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해결 방식을 모색하는 임팩트 비즈니스, 임팩트 금융 전문가들이다.

우리 사회에 사회복지 인력을 키우는 교육기관은 엄청나게 많다. 사회복지사가 과

다할 정도로 넘쳐난다. 한편 비즈니스와 금융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이 두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가가 없다. 사회문제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를 운영할 사람이 없는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등에 관한 관심이 확산하면서, 법과 제도를 만들고 재원의 공급도 제법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올바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가 부족하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 사람의 육성이 필요한 것이다.

☆ 소스타인 베를렌 명언 "남에게 보이기 위한 소비활동이야말로 가장 정당한 과세의 대상이다."

미국의 사회학자이자 사회평론가. 그는 "좋은 연구는 하나의 질문을 두 개로 만든다"는 말도 남겼다. 그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생산량'을 올리는 산업 정신과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정신을 구별했다.

☆ 고사성어 / 의필사문(疑必思問) "의심나는 것은 반드시 질문할 것을 생각하라"는 말이다. 소학(小學) 경신(敬身)편에 나오는 공자(孔子)의 아홉 가지 생각(九思) 중 하나다.

☆ 시사상식 / 영끌대출 '영혼까지 끌어다 대출을 받는다'라는 뜻을 지닌 신조어.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대출 규제를 시작하자 부부가 양쪽에서 신용대출 등 받을 수 있는 모든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한다.

☆ 우리말 유래 / 바가지 굶다 잔소리를 늘어놓는다는 말. 옛날 쥐통(괴질, 콜레라)이 돌아다닐 때 귀신을 쫓는다 하여 바가지를 득득 문지르던 데서 비롯된 말이다.

☆ 유머 / 헛김 중년 남자가 신호에 걸려 서 있을 때, 옆 차선에 나란히 선 차 속 여인에게 창을 내려 보라고 신호를 보냈다. 궁금했던 여인이 창을 내리자 "저 앞에 가서 차나 한잔 할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으나 말없이 출발해버렸다.

기저수첩



김소희 사회경제부/ksh@

'길 잃은' 여성가족부

위'인 여가부의 최근 행보는 고개를 가우뚱하게 한다. 2018년 3월 안희정 충남도지사에 대한 '미투' 고발이 나오고, 이튿날 '충청남도'를 대상으로 직접 특별점검을 하겠다'던 여가부는 어디에도 없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부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까지 여가부는 침묵했다. 서울시가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와 관련 예방 교육을 제대로 취했는지 살펴보는 현장점검도 박 전 시장의 의혹이 불거

진지 20여 일이 지난 후에야 이뤄졌다. 말 그대로 있으나 마나 한 부처가 된 것이다.

정원 글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여성인권 보호조차도 최근 정의기억연대 사건(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원금 의혹)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에서도 수준 이하의 대처와 일 처리 능력을 보여줬다'는 문구다.

분일 것이다.

한 부처의 폐지를 외치는 청원에 국민 1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미투'와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대형 사건이 발생하는 동안 일부 남성·보수는 지지하지 않

아도 수많은 여성이 여가부를 응원했다. 그리고 "피해자 용기를 끝까지 지지한다"고 입장을 냈던 여가부를 믿었고, 기댔다. 물론 여가부가 성차별·성폭력 등에 관한 강제 조사를 갖고 있지 않고, 제재 권한 역시 한계가 있는 부처라는 데 공감한다.

"하는 일은 없고 세금만 낭비하는 여가부의 폐지를 청원한다.", "여가부는 성평등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하라는 성평등은 하지 않고 남성혐오적이고 역차별적인 제도만을 만들어 예산을 낭비했다."

지난달 17일 게시된 이후 나흘 만에 10만 명이 동의한 여성가족부 폐지 관련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내용이다.

지난해 5월 여성가족부는 8개 정부 부처(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에 양성평등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했다. 이는 여가부가 스스로 짊어지는 주요 성과 중 하나다.

하지만 자칭타칭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departments: 발행·인쇄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논설실장 추창근, 편집국장 김덕현, 주소, 대표전화, 광고문의, 구독·배달, 구독료.

21세기에 이념 대결이라니

오래 전 일본에서 공부할 때다. 한중일 학생들이 섞인 수업에서 동북아시아 정세를 주제로 토론을 하던 중 한 남학생이 중국에 대해 '공산주의 국가'란 표현을 썼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한 중국인 여학생이 "우리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다"라며 울먹이다 끝내 울음을 터트렸다. 그럼에도 남학생은 "공산당 1당 독재 체제인데,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면 뭐냐"며 여학생과 설전을 벌였다. 여학생의 울음은 계속됐고, 결국 교수님의 중재로 토론은 중단됐다.

당시 중국은 1978년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을 선언하고 시장경제로 전환한 지 약 20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000달러도 안 되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라며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국민만 잘 살게 하면 된다'는 덩샤오핑의 중국식 자본주의가 맞아떨어져 중국 경제는 고속 성장 궤도에 올랐고, 중국을 다녀오는 사람마다 도시 풍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런 상황에서 남학생이 중국을 '공산주의 국가'라고 한 건 사실 중국인의 '공산주의 콤플렉스'를 건드린 것이었다. 무엇보다, 1989년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민주화 항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세계가 다 아는데, 여전히 중국을 공산주의 1당 독재 국가로 치부하는 외국인들의 시선이 불편했던 것 같다. 그 여학생은.

요즘 미국과 중국의 모습이 딱 이렇다.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어 게 확실해 보인다. 중국이 불편해하

데스크칼럼

배수경
국제경제부장



는 '공산주의 콤플렉스'를 미국이 살살 긁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23일 '중국 공산당과 자유 세계의 미래'를 주제로 연설하면서 "시진핑 '총서기'는 파산한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의 진정한 신봉자"라며 "우리는 양국 간의 근본적 이데올로기 차이를 이제는 무시할 수 없다"며 중국 공산주의로 비판의 화살을 돌렸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역대 정권이 "일정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나아가 중국 민주화를 촉진하는 '관여 정책'은 실패했다"고 단언했다. 더 나아가 폼페이오는 "자유 세계가 공산주의인 중국을 바꾸지 않으면, 중국이 우리를 바꿀 것"이라고도 했다. 즉, 이대로라면 중국 공산주의가 세계를 삼켜 버린다는 것이다.

그의 발언에서 주목할 건 '프레지던트(President, 주석)'로 불리던 시 주석의 호칭을 '총서기(General Secretary)'로 바꾼 것이다. 공산당이라는 일개 당 대표에 불과한 인물이 중국 전체를 통치하는데 대한 일종의 깎아내리기도.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통령이라는 수위를 상향시키면서 중국인들로 하여금 공산당 1당 독재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게 하려는 것은 아닐까.

그동안 미국은 중국과 무역·기술·자본 등 물리적 전쟁을 벌였는데, 이제는 전술을 이데올로기 쪽으로 돌려 중국을 국제 사회에서 이념적으로 고립시키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정권의 의지가 엿보인다.

미국은 스파이 활동과 지식재산권 절도의 거점이라는 이유로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했고, 중국은 그 보복으로 쓰촨성 청두의 미국 총영사관을 폐쇄했다. 최근 수개월 간 양국은 비자 제한과 외교관 여행에 대한 새로운 제한 도입, 특파원 추방 등 상호 작용을 위한 외교 인프라를 크게 훼손했다. 그 결정판이 이번 공관 폐쇄다.

이는 현재 트럼프 정권 내 대중 강경파가 득세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를 바이러스 공포로 몰아넣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우한 바이러스'라며 계속 중국을 자극하고, 폼페이오 장관은 우방국들을 돌며 반중 동맹 전선 구축을 촉구하고 있다.

세계 최강국이란 나라 미국이 진영 논리를 앞세워 국제 사회에서 편 가르기를 부추기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난감한 건 동맹 혹은 우방이라고 자타 공인해온 나라들이다. 미국과 중국은 경제적 존재감이 너무 커서 어느 한쪽으로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양자 택일을 강요당한다면 대체 어느 쪽에서 살아야 할까. 21세기 강대국들의 이념 대결이라니. 진짜 웃을 일 없는 요즘, 당신들 때문에 웃는다. 어이가 없어서. "허." sue6870@

사설

한국경제 3분기 반등 기대, 아직 성급하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올해 2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이 -3.3%로 급락했지만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36개 회원국 가운데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발표한 13곳과 중국 등 14개 국가의 성장률을 집계한 결과, 우리 성장률이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미와 유럽 등 선진국 경제가 특히 부진했다. 미국이 전기 대비 -9.5% 추락한 것을 비롯, 캐나다 -12.0%, 독일 -10.1%, 프랑스 -13.8%, 이탈리아 -12.4%, 스페인 -18.5%로 주요국들 성장률이 대부분 11.5%로 급반등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가장 먼저 겪고 가장 빨리 탈출한 결과다.

한국 또한 선진국들과 달리 경제붕쇄를 하지 않아 극단적 소비 위축을 막았고, 중국의 소비재와 자본재 수입이 떠받친 덕분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집계한 7월 수출은 428억30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0% 줄었는데, 그나마 감소율이 한 자릿수로 낮아진 건 코로나19 사태 이후 4개월 만이다. 수출 감소율은 4월 -25.5%, 5월 -23.6%, 6월 -10.9%에 이르렀다.

경기가 바닥을 찍고 회복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기대를 가질 만하다. 정부도 7월 수출 실적을 긍정적인 반전 신호로 평가한다. 1분기와 2분기의

경기 추락 이후, 코로나19가 수그러지면 기저효과에 따른 급반등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산업활동동향도 일단 희망적이다. 생산과 소비, 수출 등 경기지표들이 모두 개선됐다. 전산업생산은 전월보다 4.2% 증가했는데, 작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이 전월보다 2.4%, 설비투자는 5.4% 각각 늘었다.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와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변동치도 5개월 만에 동반 상승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3분기 우리 경제의 확실한 반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블룸버그가 2일 집계한 14개 해외 경제연구기관과 투자은행(IB)의 올해 한국 3분기 성장률도 평균 1.3%다.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날 것이라 전망이다.

그럼에도 아직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2분기 한국 경제의 선방은, 선진국의 코로나19 확산과 경제붕쇄가 이뤄진 시차(時差)가 작용한 측면이 많다. 코로나19는 전혀 수그러지지 않고 있다. 재확산에 따른 각국의 경제 활동 재개 지연, 게다가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 격화는 3분기 우리 경제의 최대 불안요인이다. 한국 경제 회복의 관건은 세계 경제가 언제 살아나느냐에 달려 있다.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조금도 긴장을 늦출 때가 아니다. 경기 회복의 모멘텀 마련을 위한 정책 수단의 총동원이 절실하다.

김준형의 터닝포인트



산업부 차장

수소전기차 운전하면 과태료 낸다고?

라면 모를까 15년 전만 해도 자동차 머물러서 떨어지는 액체를 선뜻 마실만 한 용기는 없었습니다. 자동차 내연기관에 대한 편견과 수소전기차에 대한 무지함이 가득했으니까요.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변에서 친환경차를 만나는 게 어렵지 않은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와 대형마트, 아파트 주차장에도 충전기를 쬐는 전기차가 여럿입니다. 그 뿐인가요. 이제 수소전기차도 '수소'에 대한 편견을 성큼 밀어내며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업계가, 심지어 많은 수소전기차 운전자가 간과하는 사실이 있는데요. 바로 '고압가스 자동차 운전자 의무 교육'입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3조)에 따르면 수소를 포함한 고압가스 자동차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시행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운전자 본인은 물론, 가족, 나아가 대리운전자 역시 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미이수 운전자는 1회 적발 때 15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적발 횟수가 늘어난다면 과태료가 300만 원까지 불어납니다.

수소전기차 운전자 대부분이 이런 사실

을 모르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수소전기차를 판매하는 자동차 회사도 이에 대한 고지 없이 차를 판매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현행법상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운전자는 차를 인도받는 순간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되는 셈이니까요. 여러 명의 수소전기차 오너들에게 문의해도, 이 차를 판매한 영업사원에게 물어도 이런 법령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반응은 "세상에, 그런 게 있었나요"였습니다. 수소전기차에 대한 차별도 아닙니다. 고압가스 자동차 운전자 안전교육은 한때 LPG 자동차 운전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있었습니다.

수소전기차 보급을 위해 정부는 갖가지 규제를 걷어내고 있지만 이 노력은 충전소 확대에만 집중돼 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물러나 다른 쪽으로도 눈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이웃 나라 일본 역시 '고압가스 보안법'이 존재하는데, 자격을 갖춘 관리자가 있어야 충전할 수 있다는 법령을 개정하고 나섰습니다. 우리도 관련 법을 점검하고 실태를 파악한 뒤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합니다. 시차부터 뼈저리게 체 할 일 못 하고 있는 21대 국회 법사위만 정신을 차린다면요.

junior@

미리 보는 한 주 용적률·층고 완화, 주택공급 대책 발표

이번 주(8월 3-9일)에는 소비자물가 동향과 국제수지 통계가 발표되고,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 국회 처리에 맞춰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공개될 예정이다.

통계청은 4일(화) 7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한다. 마이너스 물가를 탈출할지가 관심사다. 6월 소비자물가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0.0%가 올라 보험세를 보였다. 올해 물가는 1월 1.5%를 찍은 뒤 코로나19 여파로 2월 1.1%, 3월 1.0%, 4월 0.1%, 5월 -0.3%를 기록하며 저물가 기조를 보였다. 5월의 마이너스 물가를 벗어나긴 했지만 아직 플러스 전환을 예단하기엔 이르다는 분석이 많다.

한국은행은 6일(목) 6월 국제수지(잠정)를 공개한다. 지난 4월 코로나19 영향으로 1년 만에 적자(-31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던 경상수지는 5월에는 다시 22억9000만 달러 흑자로 돌아섰다. 무역수지가 4월(-16억1000만 달러) 적자를 보인 이후 5월(+3억9000만 달러) 흑자로 전환해 6월(+36억3000만 달러)에도 흑자폭을 늘림에 따라 경상수지도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6-7월 이어진 정부 부동산 대책의 완결판이 될 주택공급 대책은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4일 즈음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용적률·층고 제한 등 규제를 완화해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고 새로운 택지를 발굴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홍남기 부총리 최근 국회에서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되면 상당 부분 물량 공급으로 시장에 여러 영향이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임대 물량에 대해서도 별도로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해외 이벤트로는 7일(현지시간) 나올 미국의 비농업 신규 고용 보고서가 관심사다. 노동부가 발표할 7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다면 향후 경제 회복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지만 당장 악화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분석이 다소 우세하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7월 실업률은 10.6%로 6월의 11.1%에서 소폭 더 하락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은 126만 명가량 늘었을 전망이다. 6월에는 480만 명 증가했다.

정리=홍석동 여론독자부장 hong@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24시간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SAMSUNG



대용량 의류케어 시대
누가 이끌지?

국내 최대용량인
우리가 이끌지!

대용량 의류케어의 선두주자답게
삼성 그랑데 건조기^{AI}
국내최초·최대용량 17kg 출시

국내최초·최대용량 17kg 건조기 출시 기념
삼성 그랑데^{AI} 최대용량 완성大作전
.....
삼성 그랑데^{AI} [24kg 세탁기 + 17kg 건조기] 및 삼성 에어드레서 동시구매 시
삼성 에어드레서 구매금액을 돌려받는 효과 (130만 포인트/캐시백)
기간 2020.07.17 ~ 2020.08.31

삼성 그랑데^{AI}

* 세부사항은 삼성전자 홈페이지(www.samsung.com) 참조
* 삼성 에어드레서 리얼블랙(DF60T8301KG) 삼성닷컴 혜택가 기준
* 행사 대상 제품(삼성 그랑데^{AI})은 올인원컨트롤 모델에 한함
* 구매 상품 취소 및 반품 시, 혜택도 함께 반납해야 함
* 일부 모델 제외 *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실물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가전을 나답게.